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99-220022-14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Contents | 우수상

● 교육/인적 자원 분야

- 1. 가출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이동쉼터 14
- 2. 지하철 역사 내 지하철도서관을 활성화시켜주세요 15

●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 3. 춘천의 공공도서관 행사 다양성을 확보해주세요 16

● 보건의료/환경 분야

- 4. 하남시 신도심과 원도심인 환경격차 해소 17
- 5.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제안합니다 18
- 6. 구민이 머무는 공원, 놀이터, 산책길 등 자연조성공간에 분리수거장 의무설치안 19
- 7. 폐교가 된 학교나 사용하지 않는 폐건물을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원(보건소)으로 확충 20

●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 8. 충주시 봉방동 버스차고지 이전을 통한 환승센터 건립 및친환경 버스 도입 21
- 9. 시흥형 탄소중립 스마트허브시티 여행 개발 22

● 재정/경제/복지 분야

10. 청년 브릿지 통합플랫폼 개발을 통한 부산시 청년소통플랫폼 만들기	23
1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이동 돕는 장애인씽씽카, 장애인교통바우처	24
12. 지역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관련 개선방안 제안 (구매프랫폼 통일, 오프라인 발행, 고령자 등의 접근성 제고)	25
13. 부산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 발전을 통한 청년인구유출 및 일자리창출 문제 해결	26
14. 경제 지원 및 복지정책 해당자에 대한 공지 문자 발송	27
15. 공공배달앱을 포장주문앱으로 특성화하기	28
16. 주택공급, 신규 생산보다 현황과약과 자원 활용부터	29
17. 산학 협력 관계 강화 및 기관 설립을 통한 부산 지역 연고 기업 유치	30
18. 비대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개설	32
19. 농촌 일손돕기	33
20. 저소득층 1인가구 돌봄 서비스 제공	34
21. 소외된 젊은 계층의 복지 사각지대의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35
22. 1인가구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	36

● 정치/행정/사법 분야

23. 킥보드 및 오토바이 관련 법안 개정	38
24. 천전동 소방119안전센터 건립 및 경찰지구대 설치를 희망합니다	39

Contents | 장려상

●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1. 자전거 전용도로 42

● 교육/인적 자원 분야

2. 실습, 견학 위주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추진해주세요 43
3. 거여2동에 고학년이 놀 공공장소를 만들어주세요 44
4. 보육교사처우개선을 건의드립니다 45
5. 학교에 어린이 편의시설을 만들어주세요 46
6.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정책(발달장애, 자폐아동) 47
-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정책(작은학교 활성화)
7.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행사를 진행해주세요 48
8. 인천교육행정의 문제점 49
9. 교육 관련 정책(진로 교육, 역사 교육, 사회적 약자 교육 등등) 50
10. 지역 소멸, 출산율 저하 해결을 위한 독일 학비무료 대학교육제도 도입 51
11.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 정치 학교 제안 52
12. 기업협업 통합급식 시행 53
13. 경기도 교육감 입장으로로서 54
14. 마을교육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 55
15. 유아 및 특수아동을 위한 교육시설 56
16. 청년창업 메카_서초창업밸리 구축 57
17. 교육개혁, 입시개혁 58
18. 평생교육 활성화 59
19. 예체능 시간을 늘리자 60
20. 효 교육의 활성화 61

21. 학교운동장을 천연잔디로	62
22.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교사 복지 개선	63
23. 상담심리사 국가자격증 개설	64
24. 청소년 자치 배움터를 마련해주세요	65
25. 지방 대학과 농어촌 학생들의 1:1 멘토링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66
26. 파주에 특성화고 설립	67
27. 연령별 인적자원 활용 관련 지자체별 개별 대책 마련	68
28. 교육 개혁[혁명]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69
[경쟁을 유도하는 교육은 이제 그만, 우리 청소년들에 행복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시절을 되돌려주세요]	
29. 중학교 설립이 시급합니다	70
30. 평등한 교육 수준의 제공	71
●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31. 공공질서 지도 및 계도	72
32. 부산 문화관광 활성화해주세요	73
33. 사천시가 운영하는 낚시테마파크	74
34. 삼송 마을에 반려동물 전문 도서관 건립을 문의합니다	75
35. 초중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숲산책 시간을 주세요	76
36. 동양동에 건강 - 체육센터 만들어 주세요	77
37. 공약 : 종로구만의 특색과 차별화를 잘 살려 종로 관광문화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78
38. 대구 원도심 골목길 투어 및 상권의 활성화	79
39. 외국인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대	80
40. TBN 전남교통방송 설립해주세요!	81

Contents | 장려상

41. 부평구 공병부대 부지 복합쇼핑몰 유치	82
42.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의 폐건물 완전철거 및 호수공원 조성	83
43. 인천 내항	84
44. 지하철역을 문화와 환경보호의 공간으로!	85
45. 서울시 오래가게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종로구가 그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
46. 엘리트체육선수들의 대회출전 결석 허용일수 축소 폐지	87
47. 건강하고 활발한 강북구를 위한 공약제안	88
48. 문화생활과 지역생활상권의 상생을 위한 문화복지제도 요청	89

● 보건의료/환경 분야

49. 부산 남구소방서 설치 공약!	90
50. 실효성 있는 육아 복지 정책	91
51. 담배꽂초를 버릴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92
52. 아이스팩을 공공기관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해주세요	93
53. 동물권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과 동물학대 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94
54. (청주시 흥덕구) 청소년 플로깅 캠페인 X 복대동 솔밭중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현수막 및 360 CCTV 설치요청	95
5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96
56. 대구의료원 이전 공약을 제안합니다	97
57.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노후화 개선	98
58. 모야모야병에 대한 처리	99
59. 기후와 환경을 위한 노플라스틱 정책 제안	100
60. 영유아 야간진료가 시급합니다	101
61.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복지 도입과 환경개선을 제안합니다	102

62. 길가 쓰레기통 설치	103
63. 3가지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104
64. 첫 아이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105
65.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단 거주지의 화재경보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주세요	106
66. 난임부부 지원	107
67. 독거노인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08
68.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09
69.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110
70. 공공장소에는 분리수거장이 필요합니다	111
71. 수도물 마시기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천을...	112
72.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버스 노선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113
73. 청소년 위탁시설 확충	114
74.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문제 해결 - 2	115
75. 시골의 빈집 공약	116
76. 마트의 스티로폼 포장, 플라스틱 트레이 포장 금지해주세요	117
77. 공원에 쓰레기통을 만들자	118
78. 공공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해주세요	119
79. 교통 문제 보완	120
80. 안양시에 건의합니다	121
●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81. 불법주차단속을 자치경찰 및 주민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122
82. 안전하고 신속한 안양!	123
83. 천안터미널 시내버스 확대 및 배차간격 줄이기	124

Contents | 장려상

84. 안전한 인도를 위해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등 인도 주행 시 처벌 강화해주세요	125
85. 승객이 소수인 농촌마을 시내버스를 대신해 공영택시 운영	126
86. 동구와 수성구를 이어 줄 대중교통 증편 등 인프라 건설을 건의합니다	127
87. 오포 신현리 일대 분당 우회로 4개 건설	128
88. 노은3지구 도로망 확충 요청	129
89. 안양의 문제점 해결 정책	130
90. 더 나은 안양시에게 바랍니다	131
91. 출퇴근 시간 혹은 교통체증 심화되는 시간대 시내버스 탄력적 운영	132
92. 등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해주세요!	133
93. 부평구청역 인근 GM아시아태평양 본부 확장 이전 및 복합개발	134
94. 선학 별빛 도서관 공원 내 그리고 선학경기장 내 주차타워 건설해주세요	135
95. 놀이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136
96. 도로이지만 아직 아스팔트비포장되어있는 많은 마을길을 포장해주세요	137
97. 공사	138
98. 버스 노선 신설이 절실합니다 (영통3동 - 하동 노선)	139
99. 안양시에 대한 문제	140
100. 지하철 복합열차운행 5호선 방화~강동(천호)구간, 1호선 청량리~병점구간, 청량리~천안구간	141
101. 희망공약제안	142
102. 장애인 보도블럭 설치및 교체	143
103. 위험 천만한 놀이 민식이법 놀이 하는 아이들 대신 그 부모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144
104. 아이들과 노인분들을 포함 진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145
105. 계양구도 따릉이처럼 공유 자전거 설치해주세요	146
106. 거여 2동 유마트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	147
107. 파손된 인도, 차도 복원	148

● 재정/경제/복지 분야

108. 육아 수당 현실화에 대한 희망공약제안입니다	149
109.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치매 예방과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150
110. 특정시간에 버스 확충을 제안합니다	151
111. 정읍 시내버스 막차 시간 연장	152
112. 젊은 농업인으로 활력넘치는 고장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153
113. 밤길 콜 서비스 시행	154
114. 다자녀 돌봄서비스 지원금 확대	155
115. 다연령층을 위한 쉼터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156
116. 자영업자 사각지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시다	157
117. 부산	158
118. 장애인 집 지원, 장애등급 지원.	159
119. 구도심 재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	160
120. 시각장애아동들을 위한 놀이교구재 보급방안!	161
121.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안	162
122. 남녀 평등법	163
123. 전주시 전주천 주변의 산책로 확대 및 보완	164
124. 안양시 건의사항	165
125. 소상공인을 위한 문제해결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166
126. 살기 좋은 안양시, 우리 같이 만들어요!	167
127.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통 설치공약	168
128.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복지대책 마련	169
129.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거나 해당 기간 이자 납부를 중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170

Contents | 장려상

130. 복대국민체육센터 대농공원과 연계하여 조성(공원, 심각한주차난, 문화관 활성화) 해주세요	171
131. 워킹맘에게 재교육 기회를 확대해주세요	172
132. 소상공인(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제안	173
133. [재정, 경제, 복지] 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	174
134. 양재역 3,4번출구 에스컬레이터설치및 층간소음법 시행	175
135. 재활용 정책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어주세요	176
136. 시민과 유기견에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는 유기견 보호. 구제 제도를 실천	177
137.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주세요	178
138. 반려동물 복지증진 강화	179
139. 치솟는 배달비 담합 신고 인센티브 정책	180
140. 농촌체험 테마빌리지 구축	181
141. 충청북도 충주에 청년공간 설치를 제안합니다	182
142.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들!	183
143. 경제회복지원금	184
144.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5
145. 맞벌이 가정 보모 지원 요청	186
146. 안양시의 이런점을 추가해주세요	187
147.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해주세요	188

● 정치/행정/사법 분야

148. 주택 생활의 질 상생을 위한 공원, 주차장 건립에 대한 제안	189
149. 유기견 문제	190
150. 과학 기술 연구를 위한 인력 예산 확충	191
151. 데이트폭력	192

152.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정책 심의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193
153.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사전투표소, 투표일투표소 운영해주세요	194
154. 수원시.구청,시청	195
155. 축법소년법 폐지 및 동물학대처벌법 강화	196
156. 정치, 행정 사법 이전	197
157. 교통사고 예방	198
158. 청소년 부적절한 광고 규제	199
159. 층간소음	200
160. 길고양이 등 야외동물에 대한 공약	202
161. 무투표 당선이라도 공약/계획을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지침 개정 요구	203
162. 서울시 중구 다산동 성곽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탁드립니다	204
163. 자전거 뺑소니 운전자 보도블럭 통행 적극 계도 시행	205
164. 일제강점기 光州 독립운동의 산실 興學館 복원	206
165. 후보자들이 국민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책자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207
166. 일산신도시 공약	208
167. 반려견의 위험성	20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우수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보건의료/환경 분야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재정/경제/복지 분야
정치/행정/사법 분야



우수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가출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이동쉼터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주변에 분명 사회적 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주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이동쉼터 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제안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배경]

가정이나 학교를 벗어나 거리로 모이는 청소년들, 그렇기에 더 큰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바로 사각지대 청소년들입니다.
심야 야간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및 물질적 돌봄 제공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안정책]

야간 시간에 청소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배회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움직이는 청소년 이동 쉼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공서비스]

가출하였거나, 가출을 고민하거나 가출 중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긴급 구호 돌봄(먹거리, 쉼터, 불거리, 임시거처)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 및 의료 검진 등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관내) 저소득 청소년 계층 지원 사회 복지 예산의 0.1% 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지하철 역사 내 지하철도서관을 활성화시켜주세요

[제안이유]

3호선 내 역사에 간이 지하철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공간 자체가 좁아서 도서관보다는 지하철 도서자판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도서관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의 순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하철도서관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기에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1. 지하철도서관 기기 앞에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 의자를 설치해 주세요.

실제로 합정역 2호선에 테이블이 마련된 간이 쉼터가 존재하는데,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호선 내 역사의 지하철도서관도 테이블을 설치한다면, 지하철 시간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민들의 도서관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지역민들의 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시켜 지하철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지하철도서관 기기를 홍보해 주세요.

사실 지하철에 지하철도서관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하철도서관 기기 자체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하철도서관 기기 자체를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하철도서관 기기 이용방법, 특징 등을 홍보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지하철도서관 기기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수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춘천의 공공도서관 행사 다양성을 확보해주세요

춘천시에 공공도서관 행사의 취지는 좋지만 행사의 수준과 다양성이 높지 않다고 느낍니다. 춘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춘천시립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 강의 행사만 하더라도 매년 비슷한 주제의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를 듣는 청취자들과의 소통도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하는 강의들이 모두 책이라는 주제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춘천의 다른 도서관 행사를 찾아보니 대부분이 그림책 아니면 독서토론이 많았습니다. 가끔씩 공공도서관에서 미디어 교육이나 음악 행사를 하는 것도 보았지만 참여해 보면 기초 정도만 배울 수 있어 춘천의 도서관 프로그램 질이나 다양성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미디어 강좌나 사진 같은 다양한 문화교육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1. 새로운 프로그램 구축

춘천의 공공도서관에서도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도서관 인프라

열람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에도 사람들이 전시를 구경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최근 기기들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3. 다양한 강사 초청

도서관에서 초청하는 강사들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초청해 도서관에서 하는 강좌의 전문성과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가령 청소년 강좌에서는 현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유튜버를 초청하는 식으로 강사를 불러야 합니다.

4. 프로그램 소요예산

-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기업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가로 홍보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우수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하남시 신도심과 원도심의 환경격차 해소

[제안사유]

하남의 원도심인 신장동의 경우 낡은 주택과 유흥시설이 산만하게 산재되어 있어 도시 미관이 아름답지 않다. 또한 생활편의 시설이 신시가지 중심으로만 형성되어 지역의 위화감을 조성함.

[주요내용]

1. 도로 확장 필요

광주 가는 옛길에 모든 버스가 편중되어 있어 교통 행정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 구도심은 하남의 역사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원주민들의 터전으로 행정적으로 신장시장과 덕풍시장 구도로의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

2. 그린벨트지역으로 개인의 재산권 묶임

하남시의 감북동, 초이동, 초일동 등 하남의 외곽,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동네들은 그린벨트라는 미명 아래 30여 년간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다. 지나치게 창고지로만 형성되어 있어 사람이 살기에 교통여건이 불편하다. 인허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환경을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

3. 도시재생사업 필요성과 환경개선에 대한 재평가 필요

하남시 신장동의 낡은 주택가와 신장시장과 더우개 먹거리 상가와 덕보교 근처 유흥가에 대한 환경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낡은 주택과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주택가의 기능이 떨어지고, 상업거리로서의 자리매김도 부족하다. 시 차원의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

4. 하남시의 이미지 메이킹 필요

서울에서 하남에 진입하는 옛 황산사거리 초입에서 느끼는 것은 서울에서 있던 가로수가 사라지고 신형 건물만 보인다. 서울에서 하남방면으로 신시가지 쪽은 벚꽃나무 가로수를 잘 심어서 아름답지만 실제 하남시 진입로부터 가로수가 없어서 첫 하남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친환경 하남의 상징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첫 시작부터 가로수 정비를 통해 환경이 아름답게 조성되어야 한다.

5. 하남의 도시 문화재에 대한 대외 홍보 강화

인근 다른 시에 비하여 하남은 홍보가 미비하고 자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주민 홍보나 외부 홍보가 낙후되어 하남시는 덕풍 5일장 정도의 상식 밖에 없다. 하남 구도심의 도시계획을 마련하여 하남의 위상을 높여주기 바란다.

우수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기후위기에 관련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를 이렇게 전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적습니다.

1. 채식급식 시범도입 및 확대

서울특별시에서 학교를 지정해 채식급식을 시범 도입하고, 이를 연구해 서울특별시 전역,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해 주세요. 채식은 기후위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채식의 선택지가 많고 쉽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채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채식을 선택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정부가 나서서 시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채식이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채식급식을 실시하고,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 등을 연구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음을 보이면 사람들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채식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플라스틱 페트병 공병 환불 제도 실시

우리나라는 소주병과 맥주병을 마트나 편의점에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페트병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벨을 다 떼고 세척해서 마트 같은 기관에 가져다주면, 똑같이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페트병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학생들에게도 친숙한, 더 대중적인 플라스틱 페트병을 공병 환불해주는 제도를 실시하면 기후위기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것도 일정 지역을 지정해 실시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길 미래세대입니다. 저희가 좋은 환경에서, 아니 나쁜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지금 변화해 주세요.

우수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구민이 머무는 공원, 놀이터, 산책길 등 자연조성공간에 분리수거장 의무설치안

동대문구에 보면 여러 산책길과 작은 공원들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잠시 쉬어가고 운동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구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구민들이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장소에 사람이 다녀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쓰레기들을 담을 수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장이나 쓰레기통이 없는 곳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구민들이 그냥 길거리에 버리거나 불편하게 집까지 가지고 와야 합니다. 물론 분리수거장이나 쓰레기통이 있는 곳들은 그나마 그곳에서 버릴 수 있지만, 그것마저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쓰레기가 넘쳐서 오히려 길거리 바닥에 넘쳐 흘린 적도 많아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많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최소 1개 이상은 각 장소마다 쓰레기통이나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주요내용]

무엇을 : 분리수거장을 각 산책길뿐 아니라 각 공원 및 놀이터 등에 최소 1개 이상 설치

어떻게 : 사람이 잘 다니는 길목에 일반쓰레기부터 플라스틱 종이 등

각 분리수거별로 쓰레기통을 설치

언제까지 : 빠르면 좋습니다. 적어도 올해 안에는 모든 장소에 설치가 되길 희망합니다.

[소요예산]

동대문구에 각 동마다 최소 10개 이상의 공원 및 놀이터, 산책길 등이 조성되어있고 각 장소마다 1개 이상씩 분리수거장을 설치한다면 최소 한 곳당 10만 원씩 잡고 한 동마다 100만 원 정도 예상하며 동대문구 전체로 확대하면 최소 2천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분리수거장을 수시로 청소하고 교체해줄 수 있는 청소인력비용도 생각하면 초기비용 2천만 원 이상 + 청소인력비용 월 5천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예산은 예상일뿐 의회에서 논의하여 자세한 부분 정해야합니다.)

[재원조달방안]

이건 구민을 위한, 구를 위한 일이기에 당연히 구의 세금으로 총당해야할 것입니다. 구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구가 깨끗해지고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다면 구차원에선 소요예산보다 더 큰 결과를 얻어갈 것입니다.

우수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폐교가 된 학교나 사용하지 않는 폐건물을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원(보건소)으로 확충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중요한 공공의료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원이 모자라 신설되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폐교가 되는 건물도 많고 또한 크기가 큰 폐건물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제안 하나 하고자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런 건물을 활용하여 응급센터로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거리로 나누어 응급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골든타임에 충분히 119가 갈 수 있으며 응급치료가 가능한 거리에 응급센터, 즉 보건소의 기능 확장이 제일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과 지역의 경계가 되는 곳에 응급센터가 있다면 더 좋을 듯합니다.

지역감정으로 우리 지역에 꼭 응급센터가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경계에서 어느 지역사람이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투자하여 함께 만드는 응급센터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균형발전이 되지 못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발전이 되어 있고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남부지역(군 단위)은 더욱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에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군 단위에도 응급조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군 단위에는 인구 수가 작기에 가까운 시나 군 단위의 경계에 함께 공유하는 응급센터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교가 되는 학교나 폐건물이 되는 건물도 활용하게 되어 미관상에도 좋을 것이고, 삶의 질이 확 바뀌어집니다.

무엇을 : 응급조치가 가능한 응급센터(즉 보건소 기능 확장),
그 외 닥터헬기가 내릴 수 있는 헬기장

어떻게 : 각 지자체 경계의 폐건물이나 폐교를 활용하여 응급센터 신설과
닥터헬기나 내릴 수 있게 장소도 필요함.

언제까지 : 평생 활용가능

[소요예산]

국비, 경계 도시의 시, 군, 도비로 활용 = 폐교 활용으로 인한 인테리어와 병원 기자재 비용
= 1곳당 지역당 10억 이상 20억 이내

[재원조달방안]

국비, 도비, 마스크나 병원에 관련한 물품 판매비용으로 응급센터 재원조달도 가능함.

우수상

[산업자원/건설교통분야]

충주시 봉방동 버스차고지 이전을 통한 환승센터 건립 및 친환경 버스 도입

현재 봉방동 버스차고지의 경우,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 노후가 오래되어 친환경 차량 도입을 위한 수소 충전소 및 전기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더해 맞은편에 오피스텔 완공 예정이며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위협이 따를 수 있음.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차고지다보니 1회 환승제한으로는 시민들의 교통 자유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철로 옆이라 주택 등의 개발이 어려운 충북선 철도 옆 논밭 부지에 공영차고지를 건립하여 시내에 위치한 차고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넓은 부지를 통해 수소 및 전기버스 도입에 한걸음 나아가며 모든 버스 노선들의 충주역 경유를 통해 중부내륙선 개통에 따른 충주역 교통허브화에 앞장서기로 함.

위치 : 충주시 달천동 72-6 일원 혹은 충주시 봉방동 418-1 일원

[재원 마련 방안]

공영차고지 건립 후 현재 삼화교통 및 충주교통 소유의 차고지 부지를 시로 기부채납하여 시에서 주택용지로 변경 후 민간에 매각해 차고지 건립비용 마련 혹은 공공청사 설립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선 소요예산보다 더 큰 결과를 얻어갈 것입니다.

[기존 노선 운행방안]

- 100번대 노선 = 신규 차고지 - 충주역(애향로) - 충주시내 - 충주역(충원대로) - 주덕 방면
- 200번대 노선 = 신규 차고지 - 충주역(충원대로) - 충주시내 - 단월 방면
- 300번대 노선 = 신규 차고지 - 충주역(애향로) - 충주시내 - 목행 방면
- 400번대 노선 = 신규 차고지 - 충주역(애향로) - 충주시내 - 노은 방면
- 777번, 888번 = 신규 차고지 - 충주역 - 충주시내 - 충주역 - 차고지로 충주시내에서 어떤 방향이든 충주역을 경유하도록 함.

차고지 진, 출입 시에는 환승센터(여의도 환승센터를 모티브로 하여 편도 차선 2개씩 차지)를 이용하여 차고지 진출입 노선과 시외 방향 노선의 경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함. 차고지 신축 건물을 통해 기존 인력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통해 노년층 인구가 많은 충주시에 필요한 복지정책이며 충주역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우수상

[산업자원/건설교통분야]

시흥형 탄소중립 스마트허브시티 여행 개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특징을 살린 실천과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전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탄소중립형 여행을 제안하고 싶다.

무엇을

1. 스마트허브산단의 탄소중립 업체 선정

시흥의 산업단지인 스마트허브산업단지에서 탄소중립 관련 물품 생산 및 설비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업체에 기여도별로 메달(마크)을 수여한다. 메달(마크)은 모형이나 그림으로 건축물 외벽에 설치 및 도색하고 업체의 정보와 탄소중립 기여 내용을 담은 QR코드도 삽입한다. 추가 상징으로 나무를 심는다. 스마트허브산단과 주거 및 상업단지 사이에 조성된 곰솔누리숲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탄수흡수원의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2. 탄소중립 스마트허브산단 여행 개발

지역의 생태자원(관광지, 숙박, 요식업)과 스마트허브산단을 잇는 여행코스 개발, 여행지도에는 탄소중립 메달과 나무가 심어진 탄소중립 업체로 구성된 스마트허브산단과 지역의 생태자원 랜드마크로 구성됨. 도보와 자전거, 스마트모빌리티로 이동하고 온라인스탬프 찍기로 탄소포인트제 참가.

어떻게

- ① 수목 확보 : 산림청 및 지역 내 환경관련 단체와 연계
- ② 인력 확보 : 시니어 일자리 사업(지역 일자리 창출), 일반 시민 또는 산업단지 근로자 봉사 활동 챌린지(탄소포인트제 연계) / 지역 내 환경관련 단체,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대학생, 지역 예술가, 여행 전문가 등 TF팀 구성
- ③ 숙박시설 정비 : 산업단지와 인근 상업단지에 있는 낙후된 숙박시설 중심으로 사업 참가자 모집 후 일부 예산 지원, 탄소중립 스마트허브시티 여행을 위한 숙박시설로 개조, 에어비앤비 단지로 조성. 시설의 에너지 생산 일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

시행기간

- 2023년 : 탄소중립 산업체 발굴 및 모니터링, 탄소중립메달 수여 및 설치(도색), 탄소중립 스마트허브시티 여행 개발
- 2024년 ~ 2025년 : 탄소중립 스마트허브시티 여행 실시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청년 브릿지 통합플랫폼 개발을 통한 부산시 청년소통플랫폼 만들기

[제안이유]

정보의 홍수 시대다. 너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과 그 정보들 사이에서는 왜곡된 정보가 있거나 불필요한 정보로 인해서 시간적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정보는 재산이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어떤 기업이 존재하는지, 어떤 기업이 언제 채용하고, 연봉은 얼마인지도 중요하다.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분야, 비용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전부 흩어져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부산시 자체에서 추진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한다.

[주요내용]

청년 브릿지 플랫폼 안에는 다양한 부분이 소통될 수 있다.

1. 부산시 내 기업 현직자 - 구직자 연결
2. 부산시 내 기업 - 구직자 연결
3.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전,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부분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1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플랫폼 내에서 유익한 정보를 올리거나, 활동하는 우수 활동자들에게는 일정한 리워드 개념의 포상을 준 다음, 부산시 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다.

부산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어플과 정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홍보되어있을까? 거기서 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금융사들도 예를 들면, 삼성같은경우 삼성보험 + 삼성카드 + 삼성증권을 모두 연계해서 만든 앱을 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정보를 주먹구구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한 번에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시간이 금이고, 돈이다. 바쁘고 지친 청년들에게 편리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그래서 광안대교처럼 서로를 이어주고 도움이 되는 브릿지 플랫폼을 강력히 제안한다.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이동 돕는 장애인씽씽카, 장애인교통바우처

[제안이유]

선거 때 장애인 지하철 시위 이슈가 됐었는데 그분들의 아픔이 끝나지 않네요. 우주도 나가는 세상인데 장애를 가졌다고 이동에 불편함을 갖는 건 국가가 꼭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장애인분이 타시는 데 그 자리가 바로 제 좌석이었답니까. 기사분도 번거로웠고 저도 일어서서 가야 해서 힘들었지만 장애인분의 이동권을 지켜 드리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도 좀 걸리고 번거로웠는데 택시로 이동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서비스는 나라에서 직원을 고용해서든지 군인들처럼 대체복무 요원을 이용하여 그분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위를 통하여 시민들이 출근 시간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저렇게까지 시위를 해야 하나 안타깝기도 하고요. 정부나 사회가 이런 문제를 빨리 처리해 주었다면 이분들 시위 할 이유도 없었겠죠. 어떤 정당이든 정부에서든 내가 가고 싶은 곳 우리나라에서 내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장애인 분들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렸을 때 버튼을 눌러서 잡아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시각 장애인이라면 정말 밖에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정책실천계획. 예산. 방법]

어르신 일자리나 대체복무 요원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의 이동에 편리하게 정부 기관 콜택시 이동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인력을 활용하면 일석이조 인력난까지 해소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에너지 복지정책처럼 일정 금액을 교통비로 지급을 해서 그분들에 콜택시를 편안하게 타실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은 팍팍 주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권리 보장을 소홀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예산은 지방세에서 조달하여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나 노인인력을 활용한 운전기사를 도입하는 것도 응원합니다. 바우처지급은 복지예산을 이용하면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지역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관련 개선방안 제안

(구매플랫폼 통일, 오프라인 발행, 고령자 등의 접근성 제고)

[제안이유(현황/문제점)]

지자체별 지역화폐(예,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 ① 지역상품권 구매/사용하기 위한 APP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지역별로 다른 APP을 설치/가입해야 하는 불편 ② 지역상품권 구매방법이 제한적(APP 구매)이어서 고령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은 구매가 어려움 ③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공정하고 평등하게 지급되어야 하나, 구매방법이 선착순 방식이어서 손이 느리면 구매가 어려움

[주요내용(개선방안)]

① 지자체별 상품권 APP을 합한, 통합 구매플랫폼 활용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단일 APP으로 상품권 구매/사용 ② 지역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오프라인(농협, 우체국)에서도 구매 가능하게 하여, 노인 등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신 지역주민도 쉽게 구매/사용 ③ 현행의 선착순 구매 방식이 아닌, 구매 사전예약을 받아(공모주 배분하듯) 구매신청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 등 보다 평등한 방식으로 지급해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도 원활히 구매하게 하는 등 지역 공공재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③ 은 소프트웨어 및 자치법규 개정 등을 감안 23년 중 실시

①, ② 는 각 지자체 및 기존 상품권 사업자 간 협의, 오프라인 상품권 발행체계 마련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24년 중 실시를 강력히 제안한다.

[소요예산]

① : 165억원 이내(서울시 제로페이 개발시 예산. 기존 비플제로페이 활용시 예산절감)

②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오프라인 구매자의 할인율을 온라인에 비해 낮춰, 해당 비용으로 발행비용 총당(순비용 0)

③ : 2억원 내외(서울시 공공앱 개발에 통상 2억원 이내 소요)인 등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신 지역주민도 쉽게 구매/사용

[재원조달방안]

최초 167억원은 우선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 사용 (필요시 지방채 발행)

다만, 통합플랫폼 활용으로, 지자체별로 중복되어 지출되던 앱의 개발/유지보수 비용이 절약 되어, 장기적으로는 최초 사용예산 총당 및 추가 예산절약 가능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부산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 발전을 통한 청년인구유출 및 일자리창출 문제 해결

[제안이유]

현재 부산이라는 도시는 예전 공장들이 즐비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관광도시, 소비도시로 전락해버렸고, 젊은 청년층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타지방 또는 수도권으로 직장을 찾아 떠나고 있다. 어떤 도시든, 국가든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고 전제했을 때, 미래에 발전될 확률이 매우 미비 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산을 지금 현재처럼 소비도시, 관광도시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생산도시, 일자리를 창출 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내용]

북항재개발 및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성과 함께, 개발이 미비하고 부지가 넓은 곳에 기업들이 공장을 만들고 들어설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 시점에서,

1. 북항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물류관련클러스터 구축

2. 서부산 제조산업클러스터 구축

2가지를 제안한다. 이는 부산시 지자체 수준에서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부산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도시들이 고령화속도가 빨라지고, 수도권집중현상으로 인한 집값 상승요인과 수도권 - 지방도시간의 불균형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30대인 국민으로써, 친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대부분이 떠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로지 일자리 때문이다. 여자친구와 가족을 놔두고 가야된다. 먹고살기 위해서다.

수도권이 나쁘고, 안 좋다는 뜻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땅아래에서 균형있게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다. 부산은 제2의 도시답지 못하게, 소비도시화 되고 있고 따라서 고령화속도 전국에서 1위인 것으로 알고있다. 젊은 인구유출은 가속화되고, 고령화 속도 또한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부산의 미래는 어떨지, 정책에 문외한인 내가 봐도 너무 명백해 보인다. 정치인 분들 눈에는 부산이라는 도시 앞으로도 제2의 도시, 그런 네임밸류를 떠나서 지방 - 수도권간의 균형있는 발전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경제 지원 및 복지정책 해당자에 대한 공지 문자 발송

[제안이유]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경제 지원 및 복지정책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를 잘 찾아내어 신청하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런 정보접근에 취약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내용]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제지원 및 복지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해당자에 한해 기간 중 1회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면 좋겠습니다. 문자발송이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연령대를 나누어 젊은 연령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하고 어르신들의 경우에 한하여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소요예산]

안내문자 발생 비용

[재원조달방안]

기존에 경제지원 및 복지정책을 진행했으나 정보가 부족하여 남은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모르면 무용지물이기에 수혜금액을 약간 하향조정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근하고 신청하는데에 의미를 두면 좋겠습니다.

2021년 탈세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패널티를 부과하고, 탈세 금액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금액을 경제 지원 및 복지정책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 뿐 아니라 각종 복지정책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납세하도록 법적인 강제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면 훨씬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공공배달앱을 포장주문앱으로 특성화하기

[제안이유]

공공배달앱 실효성 높이기,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 줄이기, 포장문화 확산으로 질 낮은 배달문화(도로 혼선/ 불법 주정차/ 이륜차 인도주행 등) 근절하기

[주요내용]

무엇을 : 공공배달앱에서 포장주문이 가지는 메리트를 높이기

어떻게 : 공공배달앱 입점 업체 수를 늘리는 방법 ▶ 광고비와 중개수수료는 0~2%, 결제수수료는 2~2.2% , 가맹점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실시간 정산, 매출 50만원 까지 중개수수료 면제) 공공배달앱이 어떤 앱인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 ▶ 음식점 앞과 집 앞에 전단지 붙이기,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가입 독려하기, 지역 SNS에 홍보하기

공공배달앱의 사용량을 확보하려면 ▶ 신규가입쿠폰 제공, 이후 재주문 쿠폰 제공, 지역화폐로 결제시 5% 추가할인, 적립 혜택 제공

*공공배달앱이 민간앱보다 메리트를 가지려면 오히려 포장주문 위주가 낫다고 생각. 그 이유는 공공배달앱이 낮은 중개수수료에도 민간앱보다 사용이 부진한 건 배달비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 배달비 때문에 배달을 꺼리거나 환경호르몬 걱정 또는 다량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소비자들을 포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 포장주문에서 공공배달앱 가질 메리트인 '직접 다회용기 가져와서 포장하기'를 추가. 그리고 앱에서 어느정도 용량을 필요로 하는 용기인지, 몇 분쯤 오면 좋은지 등을 제공하기. 스타벅스 리워드 제도에서 착안하여 직접 가져온 다회용기에 포장주문한 횟수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쿠폰과 할인 등 혜택 지급. 직접 다회용기 포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음식점의 경우 모범음식점 선정시 가산점 제공, 공공배달앱 우선순위에 보여주기, 할인 쿠폰 제공에 재정 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 혜택 제공.

[소요예산]

검색해보니 8,000만 원에서 수십억이지만... 공공배달앱의 목적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요.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주택공급, 신규 생산보다 현황파악과 자원 활용부터

[제안이유]

- 대선 공약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제안들을 보면 빈집, 인구 등 어떻게 고려해서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제안이 누락되어있는 것으로 보임
-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는 이미 예견이 되어있으니 과대평가 되어 있는 주택의 가격 하락은 자연히 따라올 전망이다. 지방, 촌지역부터

[주요내용]

- 도시, 농촌, 어촌, 도서 산간지역을 포함하여 현재 주택이 몇 가구인지 현황파악이 우선
- 개축이나 신축보다는 기존의 주택 중 빈집들을 국가차원에서 확보하여 1인 가구, 소규모 가정 등을 고려한 리모델링 표준안 및 공급방안 마련이 우선
- 소유자가 있는 빈집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① 참여자에 대해 양도세,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 ② 대출이자 보장제, 적정수준 이상의 임대료 보장 등

[소요예산]

- 조사 및 분석 용역비
-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타 부대비(설계, 감리, 디자인 등)
- 지자체와 주민 간 중간관리자 인력 발생
- 일부 세금 감면을 통한 기존 운영비(세금) 감소 발생

[자원조달계획]

- 첫 시작은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음, 때문에 BTL방식의 발주 방식 등의 대형투자자 유치 필요
- 조사 완료 후 주택 수요자 조사를 실시하며 수요자는 일정 비용을 지급

※ 지자체 단위에서 가능한 범위인지는 가늠이 안되므로 해당 내용은 감안...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산학 협력 관계 강화 및 기관 설립을 통한 부산 지역 연고 기업 유치

[현황 및 문제점]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로인해 지방 발전이 저하되고 지역 산업이 후퇴하였다. 이런 현상은 지방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대두시켰고 그런 시류 아래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결방안]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과 지방 연고 기업의 부재가 지방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부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이 유치한 기업과 지방 대학 간에 산학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청년 일자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관여할 산학 협력 매개 기관을 설립한다.

[이행방법 및 기간]

1단계 : 부산시에서 지방 이전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세금, 환경 혜택 확정 및 공표

2단계 : 수도권 기업과의 교류 관계 강화, 지방 이전의 효용성 제시를 통한 부산 지역 본사 이전 계획 추진

3단계 : 부산 지역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문화를 정착시켜 기업 이전을 완료함

[목표]

- 기업의 지방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 산학 협력을 통한 지방 대학 연구 능력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 지방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 감소

[필요자원]

< 인력/조직 >

대학교 연구소 인력, 기업 CEO, 실무 경영진, 현장 실무자, 산업 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고위 공무원, 공기업 경영자, 공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고등교육 담당 공무원, 회계 공무원/대학, 기업, 산학협력 매개 기관

< 공간/장소 >

- 대학 : 대학교 내 협력 기업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 공간
- 기업 : 본사 이전 및 연구 기관 설치를 위한 부지
- 산학협력 매개 기관 : 대학과 기업 간에 효과적인 교류가 가능한 장소 선정

< 협력/네트워크 >

기업과 관련하여 실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시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한 협력 환경 조성

산학협력 매개 기관이 대학, 기업, 부산시가 지역적 혜택을 모색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필요예산]

- 산학협력 매개 기관 운영비
- 대학교 연구지원비
- 기업 시설 이전 지원비

[재원조달방안]

-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 법인 지방소득세 인하
- 대학교 연구 자금 지원 목적 지방채 발행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비대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개설

[제안배경]

마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한다고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제안내용]

「비대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개설」

- 공개 토론회 개최
- 화상회의 진행
- 화면공유 및 자료공유
- 실시간 채팅 소통

기대효과

- 주민 간에 소통 강화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
-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활동 가능
- 주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

기타 : 「주민참여 지원금 지급」

공공기관 등에서는 발굴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데, 주민들의 경우에는 무급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소정의 주민참여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된다면 더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점 : 각 지역의 시민들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요. 시민들이 정책과 관련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화상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겠구요. 이를 통해 상호간의 소통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발굴에도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농촌 일손돕기

[제안이유]

가. 현재 대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코로나로 인해 더욱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

[주요내용]

1. 영세농촌가구와 조건부수급권자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구축
2. 영세 농촌마을과의 일손 연계망 구축
3. 조건부수급권자를 중심으로 한 농촌일손 연결
4. 기간 : 6개월마다 모집
5. 방법
 -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숙련공 양성
 - 고용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노동정책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취업을 통한 빈곤탈출과 저소득 빈곤계층의 사회통합 구축
 - 주민참여형 자활공동체 운영으로 시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구조의 개선을 꾀함

[소요예산]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자원조달방안]

일손을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큰 예산이 소요될 예정은 아님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저소득층 1인가구 돌봄 서비스 제공

[목표]

- 저소득층 1인가구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주거 여건 및 환경 획기적 제고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책임 강화와 사회와의 단절 및 고독사 방지

[이행방법]

복지프로그램 교육비 신설

2026년까지 1인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지자체 진행 각종 복지프로그램 참여 교육비 지원 (년 10만원 한도)

※ 노래교실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가 및 회원들과의 교류를 독려하여 외로움 및 사회적 단절을 예방

주거 여건 및 환경 질 제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빨래, 보수 및 수리 등을 통해 주거 여건 및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

문안서비스 시행

스마트폰 앱(문안서비스)을 통한 매일 안부 서비스 시행

24시간 내에 응답이 없을 경우 지자체 담당자에게 자동 연락

※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안부위치 제공

[이행기간]

2022년 ~ 2026년

[재원조달방안]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기타 복지 관련 재정 탄력적 활용 추진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소외된 젊은 계층의 복지 사각지대의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제안이유]

이전부터 복지 사각 지대에 나타나지 않는 젊은 청년 세대의 복지 필요성이 부각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이후에 독거 청년 세대의 고독사 및 자살 그리고 질병 및 생활고로 인하여 고통 받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젊은 세대라는 이유로 인하여 복지 및 또는 기초 생활 지급 범위에서 벗어나 생활고라는 짐과 또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끝내는 고독사 및 자살로 어어지는 악 순환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츰 젊은 세대가 줄어지고 있는 미래에 보완을 하여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첫째. 젊은 세대에게 비상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젊은 세대에게 청년 세대 119 라는 앱을 만들어 어느 지역이든 어떤 상황에서 든 비대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둘째. 질병 및 생활고 같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젊은 세대에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외에 생활고로 인하여 고통 받는 젊은 계층에게 전기 수도세 감면 및 임신 거처를 마련하여 2년간 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정신적인 심리 치료나 또는 상담을 통하여 혼자라는 고독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년을 위한 공공 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젊은 계층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연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균형있는 발전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

각 시도에서 편성 중인 청년층을 위한 교육 예산 및 공공 임대 아파트를 활용하여 주거를 필요로 하는 청년층 에겐 2년 간 주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며 그리고 치료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예산은 각 지자체에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망]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고 및 질병으로 연결되어 고독사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끊고 희망이 되는 정책이길 바랍니다.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1인가구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고립된 1인가구 중장년 노인, 청년층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

[주요내용]

전국 구내 시설, 비어있는 문화시설, 구청,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직접 대면하여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연극, 한주동안 있었던 경험 나누기, TMI 공유하기 같은 소소한 것들)

무엇을

지난 한주동안 특별했던 경험 나누기, TMI 공유하기, 연극 등

어떻게

구청, 도서관, 문화센터 등의 비어있는 시설에서 이를 주관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강사 1명을 섭외하여 8명 이내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 * 서로의 교류와 연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별명을 정해서 부른다.
- * 서로의 나이와 이름, 직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기본 규칙으로 한다.
- * 서로 존중하여 별명 ○○ 님으로 부른다.
- * 레퍼런스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였던 서울시민예술대학 프로그램을 참조한다.

언제까지

- 3개월 단위 프로그램
- 주 1회, 2시간

[소요예산]

- 총 2억원 / 대상자 800명
- 1인가구 중장년 50세 이상 400명
- 1인가구 청년 50세 미만 400명
- + - 5세는 원하는 그룹으로 선택 가능

- 프로그램 1개 운영 비용 : 2,000,000원
- 프로그램 1개 참가자 : 8명 내외

< 강사비용 >

2시간 = 100,000원 / 주 1회, 3개월 운영 = 1,200,000원

< 비품비용 >

간단한 다과 / 종이, 손소독제 같은 비품류 구입 300,000원

< 광고비용 >

관공서 내 포스터 부착 / 지역신문(타깃 : 중장년) / 타깃형 sns 광고(타깃 : 청년) 500,000원

[재원조달방안]

- 코로나19 관련 지원 금액
- 지역사회 복지비용
- 후원비용

우수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킵보드 및 오토바이 관련 법안 개정

[제안이유]

1. 킵보드와 오토바이가 차로가 아닌 인도로 다님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 최근 뉴스에서도 킵보드와 오토바이를 타다가 무고한 시민이 죽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교통법규를 무시(정지선, 적색 신호)하여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주요내용]

2022년 하반기 말까지 킵보드 및 오토바이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킵보드와 오토바이는 인도가 아닌 차로로만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자격 정지 벌점의 1/2을 부과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여 오토바이 규제 법안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킵보드의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길(도로)을 따라 주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킵보드를 탈 수 있으며, 2인승 불가 및 나이 제한을 만 19세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면허자격 정지 벌점의 1/4을 부과하고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소요예산]

다른 주요 사업 개발 및 국방력 강화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지급되었던 예산의 극히 일부만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

이전 여가부에 지급된 예산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 받아 법안을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 킵보드와 오토바이로부터 걷어낸 과태료를 관련 법안 운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분들께서 법안 발의에 신경을 잘 써주신다면 충분히 개정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수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천전동 소방119안전센터 건립 및 경찰지구대 설치를 희망합니다

진주소방서 천전119센터는 진주시 중심지에 있는 119 안전센터로서 구급차 1대, 펌프차 1대, 물탱크 1대로 총 3대의 소방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차의 특성상 대형차량으로 화재시 즉각 출동을 하기 위해 상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적재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특성상 물과 장비가 임무수행기간 동안 적재되어 차량에 무리가 있어 겨울에 등 보온 장치가 있는 실내차고지가 필요로 합니다. 현재 천전119안전센터는 좁은 도로 골목에 부지면적이 90평 남짓한 대지에 있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전지구에 소방력을 보강하여 신속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 좁은 차고지에 기타장비 보관의 어려움
- 소방호스 사다리 등 소방 기구를 조작 연습할 공간이 없음
- 삭막한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상시출동대기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가
- 천전동 좁은 도로 골목에 위치하여 출동시 애로

[해결방안]

1. 진주시에서 천전동 일대 119안전센터 부지구매, 경상남도에서 안전센터 건물신축
2. (현) 천전119안전센터를 경찰지구대로 활용

[진주소방서]

천전119안전센터에 소방인력 증원 및 펌프차 증원, 구급차 증원

[기대효과]

- 경찰지구대 청사확보로 치안유지(소방차 차고지를 경찰순찰차 출동차고지)
- 천전지구가 진주시 중심으로 진주시 외곽지역 재난사고시 동원이 원활함
(예 : 평거지구, 도동지구, 중앙지구, 가좌지구, 재난시 동시출동이 원활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장려상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육/인적 자원 분야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보건의료/환경 분야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재정/경제/복지 분야
정치/행정/사법 분야



장려상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자전거 전용도로

부천시는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있는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주로 탑니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에 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부천의 대표공원 중앙공원으로 가는 길에도 부천시청 앞에도 없고 상동호수공원에도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원과 대표 건물들이 있는 곳에 왜 자전거 도로가 없을까요. 중앙공원 가는 인도마저도 좁아서 사람 두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람 한명은 무조건 다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근처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에 자전거도로가 너무 없습니다. 중앙공원 반경 5km이내에 자전거도로 설치 1km당 3억 소요 예상, 현재의 인도를 5년간 바꾸지 말고 자전거 도로로 예산 편성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실습, 견학 위주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추진해주세요

[제안이유]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 교육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 탐색 교육은 학교 내부에서 직업 관련 교육을 받거나 영상매체를 통해서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의 교육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진로 체험센터의 운영이 적어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약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학생들이 실제로 여러 분야의 직업군 현장이나 기업에 견학하여 해당 진로에 대한 정보를 몸소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직업군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직업의 의미와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현장에 가서 직업을 눈으로 보고 몸소 느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직업체험을 다녀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체험 보고서나 소감 발표, 다른 직업을 체험한 학생들의 경험과 느낀 점을 나누면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각자 학생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몇 가지의 직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이나 직업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에서의 진로 체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실현과정]

교육청에서 직업체험을 할 해당 기업이나 단체와 협약을 통해 직업체험, 견학, 실습활동을 추진

[목표]

학생들이 간접적인 직업체험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배우면서 진정하게 내가 원하는 직업과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는 직업,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거여2동에 고학년이 놀 공공장소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여2동에 사는 6학년 어린이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 후보자분들께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거여2동에는 고학년들이 놀 공공장소가 없습니다. 대부분 저학년들을 위한 놀이터라 고학년들이 추억을 쌓을 장소가 너무 없습니다. 놀이시설이 잘 되어있던 4단지 향나무 놀이터도 최근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바뀌었습니다. 거여2동에 고학년들이 놀만한 공공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놀 장소가 없으면 아파트에서 놀게 됩니다. 고학년들이 아파트 안에서 놀게 되면 경비원분들도 힘드시고, 아파트 주민분들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아파트에서 뛰어놀다 보면 아파트 시설들이 빨리 낡게 됩니다. 관련 사례로 근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다가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복도가 좁고 계단이 많으므로 어린이들의 안전도 위험합니다.

놀지 못하면 학업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50.5%로 1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학업 스트레스와 연결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놀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학업 성취도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밖에서 놀지 못하면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게임을 더 하게 됩니다. 라임라이트 네트워크가 발표한 '전세계 온라인 게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장소가 없으면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게임을 더 하게 되고, 게임중독 어린이들이 더 생길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고학년들이 놀 수 있는 공공장소가 더 생기게 되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행복한 동네가 될 것입니다.

거여2동에 고학년을 위한 공공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보육교사처우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요즘도 뉴스에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동들을 학대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접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잔업도 너무 많고 보육교사 혼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아반 0세반도 솔직히 혼자서 세 명을 돌보기에는 힘듭니다. 영아 대 선생님 수를 줄이든지 보조교사가 항상 같이 법적으로 같이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니깐 손이 아주 많이 갑니다. 집에서 엄마가 자기에 혼자 보기도 힘든거 하잖아요. 그리고 유아반 인원도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이면 아이들에게 더 집중해서 학습과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특성상 야근이 많은데 그럴 땐 꼭 수당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은 법이 있어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시스템 보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학교에 어린이 편의시설을 만들어주세요

학교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습니다.

그럼 왜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합니다. 학교는 공부를 하는 사회제도인데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힘든 생각을 버리고 편안하게 올라가며 공부에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는 선생님들보다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학생에 편의시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만큼이나 학생들도 편하게 학교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며 친구를 사귀고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친구들과 더 빨리 친해지기 위해 놀이시설도 필요 합니다. 학교에는 아주 적은 놀이시설이 있는데 지금보다 안전하고 나은 놀이시설과 더 재미있는 놀이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함에 따라 학교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편하게 놀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많이 개발해야합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정책(발달장애, 자폐아동) -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정책(작은학교 활성화)

요즘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많은 아이들과 같이 교육이나 생활이 힘들고 특수반이나 특수학교에 가기 힘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이나 외곽 지역에 작은 학교들을 활용하여 선생님들이 소수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작은 학교에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1학년 때 학습저하와 산만한 아이가 있었는데...

6년이 지난지금 사회성도 많이 좋아지고 차분해지는 것을 보고 생각해봅니다. 비록 발달장애랑 자폐가 있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귀농 귀촌하여 자연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행사를 진행해주세요

현재, 국가 차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보다는 입시, 성적 등의 교육 현실에서 좀 더 자유롭습니다.

매주 수요일, 초등학교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해 주세요. 박물관, 영화관, 기념관, 유적지, 명승지 등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직접 체험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쇠퇴하고 있는 관광버스 회사들의 운영력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족 등으로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체험 활동 기회 부여가 어려운 부모들을 위한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책에서만 배우고, 암기식으로 배우던 공부 방법에서 벗어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인천교육행정의 문제점

교육행정 중 교사들의 전출 및 전입관련입니다. 타시도와 다르게 인천교육청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전입 온 유능한 교사들의 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타 교육청에서 전입와서 10년 이상 되어야 관리자 진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교육행정 같습니다. 전국의 유능한 교사들의 전입을 막는 것이며, 정당한 민주주의 경쟁 선별에도 어긋나는 구시대적 행정입니다. 이는 사회에 뒤떨어진 정책이며 다른 분야의 정관 대우를 뿌리 뽑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교육청소속 10년이라는 기준은 유능한인재의 관리직의 진급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참교육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2~3년 정도의 기간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10년은 터무니없습니다. 부디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교육 관련 정책 (진로 교육, 역사 교육, 사회적 약자 교육 등등)

1. 진로 찾기 프로젝트 지원 확대

진로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이 스스로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진로 체험을 확대한다. 또한 같은 진로를 가진 또래 친구들과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사회성, 인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2. 올바른 역사관 함양

올바른 역사 교육 확대를 통하여 역사 과목을 전 학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등급제를 폐지한다. 시험을 보기 위해 배우는 역사가 아닌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전 꼭 알아야하는 기본 상식을 위한 역사 교육을 실시한다.

3.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도우미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 도우미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교시킬 수 있으며, 등학교 안심 알람 서비스를 통해 우리 아이가 언제 등학교를 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4. 특수교육 시설 확대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외에도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탐색 및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한다. 또한 특수교육자 T.O.를 늘려 한 학생을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시설을 늘려 교육 대상자로서 소외 받지 않게 한다. 또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 및 각 직장과의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지역 소멸, 출산율 저하 해결을 위한 독일 학비무료 대학교육제도 도입

지역 소멸, 출산율 저하,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독일의 학비무료 대학교육제도의 도입입니다. 소멸 지역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무료로 전향하면 지역 인재 유입으로 출발해 국외 인재도 유입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무료 교육은 지역 발전 및 국가의 선진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양질의 무료 교육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쟁에 매몰되어 인정이 사라져가는 사회를 통합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더불어 출산율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숨어 있는 인재가 더 많은 무료 교육에 노출되길 바랍니다.

구체적 방안은 연구학교처럼 일부 인구 소멸 지역의 대학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이후 지역 경제 발전, 의식 변화, 인구 유입 등이 예상됩니다. 지역 간 인구 유출 문제는 국외 유입 시 해결됩니다.

예산은 지역 소멸 발전을 위한 예산, 출산 및 하위계층 예산 등에서 조달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 정치 학교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정치인을 꿈꾸는 고등학생입니다. 저처럼 미래 정치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정치 학교를 제안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배경]

우리가 사실 정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문점만 많고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막연하게 뉴스로 보면 뭔가 답답하고 잘 이해도 안 됩니다. 또한, 실제 정치인들의 모습과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알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꿈 정치 학교를 제안합니다.

[주요내용]

총 7개월(주 1회, 총 24회 차)에 걸쳐

1. 현실 정치인
 2. 정치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문화 예술 전문가 등 초빙
 3. 모의 국회 워크숍
 4. 모의 선거 캠페인 진행
 5. 정책 발굴 및 정책 개발 실습
 6. 사회 취약 계층 방문 면담
- 등을 갖춘 정치 학교 프로그램

[소요예산]

시 예산의 0.01% 재원 투입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기업협업 통합급식 시행

기업형 협업 급식. 일명 밥차 시스템으로 밥차가 특정 시간에 편성된 식단대로 정해진 급식비 내에서 통합된 메뉴의 급식을 배분한다.

1. 사업 인프라 구축

기업 내 인프라 구축은 공기업과, 공기업 외의 중소기업, 친환경 농촌 기업과 협업한 것으로 엄선된 것으로 맞춰서 편성한다.(이때, 한 사업체당 1~2달치의 단기계약을 시행해서 다양성과, 편파적으로 한 사업체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한다.)

2. 영향

학교 내의 정해진 급식비로 학교별로 편파된 급식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중소기업 및 소외기업에 대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리 공지된 기업 급식으로 정량 도시락형으로 제작하여 잔반비율도 줄이고,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을 확대 시킬 수 있다.

3. 예산

정해진 학교 급식비를 그대로 따르되 기업체만 가격 내로 한다.(기존 예산 그대로)

4. 전달하게 되면서

누구는 오늘 이런 급식, 저런 급식을 먹었다며 급식의 왈가왈부를 따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통합되고, 더 다양한 기업 안에서 먹는 급식은, 아마도 조금 더 질 좋은 급식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경기도 교육감 입장으로서

제가 경기도 교육감 입장으로서 공약이 감이 잡히지 않아서 제일 가깝게 생각하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부터 생각해서 공약을 세워봤어요. 일단 학생이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단 느낌이 없도록 이라는 주제로 공약을 세워봤어요.

원하는 진로 찾기

아직까지 진로가 뚜렷하지 않은 저를 포함한 학생들을 위해 창체 시간을 줄이고 진로 찾기 체험을 만들기

동아리나 모임에 대한 뽕뽕한 지원

몽실학교나 동아리와 같은 모임에 돈 때문에 원하는 걸 포기할 수 없게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뽕뽕한 지원을 해줍니다.

Ai 설치 의무화

선생님은 한 분이고 학생들은 다수인데 물어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거나 다른 학생들 때문에 질문을 못 했을 때가 있기에 답변 해주고 선생님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지만 간단한 질문은 받아줄 수 있는 Ai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공기 정화 청정기 설치

미세먼지와 황사로 뒤덮인 요즈음 반에 한 개씩 설치

비상 서비스 제공

야간 자율 학습이나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을 때 부모님들의 걱정은 많아지기 때문에 하교 할 때나 등교할 때 부모님께 자동으로 연락하는 서비스 입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마을교육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

[제안이유]

마을교육은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한 필수 교육이며, 혁신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가평군에서도 마을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예술 꽃 피움 학교로 마을교육을 진행하고도 있음. 그러나 마을교육을 진행하려면, 마을을 알고, 교육과정도 이해하고, 교사 및 교육공무원들과 소통도 원활해야 하고, 학교와 마을 사이의 중개역할도 잘 해야 함. 또한 마을과 교육에 대한 봉사심과 성실성이 없으면 하기어려움. 이런 능력을 갖는 마을교육 코디네이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음.

현재 가평교육지원청에서 부정기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마을교육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기고 있으나, 교육청의 장학사, 학교 교사, 교장의 보직 이동 등의 변수가 생기면 그 지속성이 매우 어렵고, 예술 꽃 피움 학교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 역시 또 코디네이터 운영이 어려움. 이런 이유로 전문적인 마을교육 코디네이터를 선발, 양성,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마을 교육 코디네이터 선발 공고를 통해 후보 인력 선발
(문해능력, 정보화역량, 마을공동체 활동 이력 등 검토)
- 일정 회차의 마을 교육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실시 후 시험을 통해 일정 점수 이상 수료생을 마을교육 코디네이터로 선발
- 2022년 1차로 6개 읍면별 1명 기준으로 6명을 선발해 2023년 운영 및 평가 후 향후 확대 방안 결정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유아 및 특수아동을 위한 교육시설

가평이 유아 교육시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인구가 적으니 그만큼의 수요가 적어서이겠죠. 현재 있는 가평유치원이 국립단설유치원이던데 너무 규모가 작아서 단설유치원이 하나 더 시내에 유치되던가, 아니면 타 지역 단설유치원에 비해 너무 협소하니 규모를 확장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특수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특수아를 위한 치료시설, 보육시설)과 그와 연계된 학교도 생겼으면 합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단설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산하에 생겨도 좋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등부터 가능한 특수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통합학교도 더불어 연계 되어 생긴다면 타 지역의 모범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서류상 부모님이 함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노인계층을 위한 사업도 좋지만, 이런 아이들의 현실을 알아주셨음 합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청년창업 메카_ 서초창업밸리 구축

[현황]

현재 많은 젊은 인재들이 청년창업을 기획하고 실제 도전하고 있지만, 사전에 안정적으로 연락처하고 경영하기 위해 미리 리허설을 해볼 기회나 장소가 필요한데 아쉽게도 그런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

서초구는 서울에서는 물론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이 있어 외지에서 접근하기 쉬운 지역이라는 특징을 잘 살려 실제 예비 창업을 통해 거래처를 발굴하거나 비즈니스 대상을 대면할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공간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젊은 인재들로 하여금 비즈니스 워크샵, 비즈니스 미팅룸 제공, 자영업 교육 과정 및 전문 회계 및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청년창업센터, 취업센터 (가칭 서초창업밸리) 의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별로 특수고용프로그램과 교육장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그런 특수고용프로그램 교육장을 서초구로 최대한 유치해서 맞춤형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조성을 미리 준비된 인재들이 바로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서초구에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에이토랑'과 '에이티움'을 운영하면서 향후 농촌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와 스킬을 미리 습득할 수 있는 리허설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런 시설들을 더 많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예술의 전당 인근과 서초구 수입차 거리의 경우, 교통접근성이 좋지만 공실이 많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 있는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정책과 지원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서초구가 이런 청년창업 고용 시설프로그램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직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서초구민이나 서초구 소재 기업들에게 구직, 구인조건을 유연하게 하는 잡매칭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교육개혁, 입시개혁

만 38세 고졸 남자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교육과 동떨어진 가정환경으로 인해 교육의 중요성이 망각된 유년시절을 보내게 되었고, 질병이나 가난으로 인해 적절한 교육기회와 기초교육 또한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던 바 학력 제한으로부터 오는 취업기회의 문이 협소하여 사회구성원으로써 전문성이 미달되거나, 건강한 사회구성 활동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인해 대학 교육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게 되는 사회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시제도를 통해서는 대학교육의 진입 또는 진로 설정이 쉽거나 용이하지 않으며, 그 절차적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멘토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여건이나 학비, 생활비 등으로부터 오는 금전적 불안정 상태 등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해결을 위한 입시개혁과 교육적 사회개혁의 취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시 또는 구에서 대학교육을 원하는 고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능교육 온, 오프라인 솔루션 제공 또는 수능입시관련 사교육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 무료이용 쿠폰제공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입시 컨설팅의 공공 지원 제도 확립, 또는 대학 입시제도인 수능제도 폐지로 인해 대학 교육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대학교육을 안정적으로 교육받거나 이수할 수 있는 교육 기본권의 권리를 사회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교육 및 입시개혁을 통해 지성인 양성과 건강한 사회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 양성에 힘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해야 합니다.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솔루션을 통해 취업이 확정된 자는, 급여에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정 재원을 총당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국가예산에 교육부분 예산의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수출주도형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에게 사회적 국가발전의 의무와 책임을 위한 교육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토세를 입법하여 토지세금의 일부를 교육에 할당합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평생교육 활성화

[제안이유]

어느덧 메타버스나 VR, AR 같은 가상현실로 인해 4차 혁명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메타버스, VR 같은 가상현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다가오는 4차 혁명에 맞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요내용]

우선 각 지자체별로 연계한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 4차 혁명에 대해 교육기관을 만들고 광역시와 국가가 전폭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며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시간교육 그리고 가능하면 수료증을 발급하여 평일에도 특별연차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교육내용은 다가오는 4차 혁명에 맞는 내용으로 하며 대상은 연령별, 기초지식테스트를 통한 기초지식별 그룹을 만들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하고 교육마다 스탬프나 자그마한 이벤트로 참여유도를 하며 수료증 발급, 간단한 테스트를 통한 기념품증정, 관련업종 일자리 지원 등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며 기간은 최소 6개월로 봅니다.

[소요예산]

솔직히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활성화만 되면 들어가는 재원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원조달방식]

현재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자원들에서 조금 그리고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아예 특별회계로 비용을 잡던가 추경편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모든 국민들이 코앞으로 도래한 4차 혁명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예체능 시간을 늘리자

요즘 예체능 시간을 줄이고 수학, 국어 등 예체능이 아닌 것에 교육 시간을 더 많이 쓴다. 그래서 나는 예체능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지쳐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예체능 시간을 빼앗기고 학교가 끝나도 학원에 가서 학생들의 건강과 우울증이 걸릴 수 있다.

둘째, 비만인 학생들이 아주 많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가서 살이 찘고 거기다가 학교에서 예체능 시간까지 줄어들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그러므로 예체능을 늘려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체능 시간을 늘려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대부분이 예체능을 하는 날을 좋아하고 국어, 수학 등 예체능이 아닌 것을 할 때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 싫어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재미를 위해서 예체능을 늘리면 좋겠다.

그러므로, 예체능 시간을 늘려야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건강과 예체능 외 다른 활동을 할 때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효 교육의 활성화

[효 교육의 활성화]

1. 가정교육이 무너지므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이 필요함
2. 전국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효 교육원과 서로 협력하고 상생운영 방안 검토

[교육일정]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진행

[예산소요비용]

- 전국에 효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교육 강사로 구성함
- 강사비 약 2시간 반 * 90,000원 * 20회차 = 1,800,000원
(단 강사비는 자격과 기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교재비 1권당 7,000원 * 수강인원 약 15-20명 = 140,000원
- 이외에는 소요비용은 교육장 상황에 맞게 예산편성하면 된다고 봄
- 교육수료 후 관련자격증 자격 부여함

[재원조달방법]

정부 보조금 70% 민간기관 30%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학교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요즘에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학교운동장보다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운동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운동장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학교운동장을 천연잔디로 된 운동장으로 바꿉시다. 왜 학교운동장을 천연잔디로 바꿔야 할까요?

첫째, 천연잔디는 환경적 장점이 큼니다. 천연잔디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를 조금 더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장은 동식물 관찰 등 학생들의 환경교육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투성이인 인조잔디와는 달리 천연잔디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환경적 장점이 커, 천연잔디는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둘째, 인조잔디와 모래로 된 운동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실제로 인조잔디로 된 운동장에서 납과 카드뮴 같은 유해중금속이 대거 검출 돼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래로 된 운동장은 뛰어 노는 학생들의 눈에 모래바람이 들어가 학생들의 눈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로 된 운동장은 뛰어가다 넘어진 학생의 상처에 더러운 먼지가 들어가 학생들에게 안 좋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천연잔디로 된 운동장은 학생들이 더 뛰놀 수 있습니다. 옛날 모래로 된 운동장에서 놀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의 꿈은 1970년대 운동장에 텅굴던 돌을 골라내며 뛰놀던 모교 운동장과 지금 내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제는 잔디 운동장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뛰놀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 학생들을 위해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바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천연잔디로 된 운동장을 만듭시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교사 복지 개선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아이들을 교육하고, 일지 등 서류 업무, 행정 업무 등 과도한 업무가 치중되어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이 정해져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뭅니다.(눈치를 주거나 특별활동 시간을 교사의 휴게시간으로 하는 등)

또한 현재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만4-5세의 경우 1:20으로 매우 많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집중력이 낮은 유아들을 놀이중심으로 교육하고 케어하려면 잠시도 쉴 수 없으며 한 유아를 보는 사이 다른 유아가 다치는 사고 등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 더 집중해서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교사 대 유아 비율 및 업무 강도도 낮춰주세요. 또한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급여도 올려주세요.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립호봉이라며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공립과 동일한 호봉 급여를 받게 해주세요.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상담심리사 국가자격증 개설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 아이들, 중장년층까지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로 삶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 또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다보니 꺼리고 심리적 골든타임을 놓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거나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상담심리사 분들이 계시고 많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국가자격증이 없어 학회가 발급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채용과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니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기기도 하고 높은 비용의 교육 등을 요구하는 행태도 생겨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자격증을 개설해 국가 단위에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는 일상 속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의료보험 처리까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청소년 자치 배움터를 마련해주세요

[제안이유]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단체는 있으나 공간이 없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이 필요함. 다양한 진로 탐색과 경험 필요.

[주요내용]

가평읍에 초·중·고 학생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에

‘몽실학교’와 같은 청소년 자치 배움터 마련

- 기존의 청소년문화센터는 주어진 프로그램에 학생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청소년 자치 배움터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구성하여 서로에게 배워가는 학습 플랫폼으로 길잡이 교사들은 학습의 조력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됨.
- 스스로 찾고 함께 배우는 학습 플랫폼으로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 예술 활동과 진로 탐구를 자유롭게 체험하며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
- 2022년 하반기 공간 조성, 2023 프로그램 운영 및 5개면으로 확대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지방 대학과 농어촌 학생들의 1:1 멘토링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지방 대학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사범학과, 사회복지학과, 체육학과, 무용학과, 축산학과 등, 여러 과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과목들을 농어촌 학생들에게 가르쳐줌으로서, 농어촌 학생들은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취업으로 가는 관문에서, 농어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소중한 경험들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배움의 기회를, 대학생 언니, 오빠들에게 받음으로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부족한 실습 교육의 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각 과의 특성과, 농어촌 학생들의 니즈를 매치함으로서, 대학생들과 농어촌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대학교에서, 지방 대학교 학생들과 농어촌 학생들과의 1:1 멘토링 사업을 직접 전공과목 등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점 획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부족한 현장 교육 기회와, 농어촌 학생과 어르신들의 전문 교육에 대한 니즈를 상호 충족 및 보완함으로써, 더 나은 지방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은 어릴 적 자신이 받은 다방면으로의 교육의 기회를 소중히 간직함으로써 해당 지방 대학생이 속한 지방 대학교에 대한 로망을 키워갈 수 있으며, 농어촌 어르신들의 해당 지방 대학교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파주에 특성화고 설립

[제안이유]

파주시 인구는 약 48만 6,000명 그 중 중학교는 28개교이고 학생 수는 약 14,500명 고등학교는 중학교의 반절정도인 18개교로 학생 수는 약 12,200명입니다. 파주의 특성상 지역 간의 거리가 멀어 비평준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땅에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중학교는 세워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신설 고등학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까운 고양시와 비교해보면 예고·외고·과학고·국제고 등 많은 특성화 학교가 설립되어 있지만 파주시는 외각에 있는 세경고와 경기세무고 단 두 곳이 다 입니다. 파주시의 미래 발전과 파주시 학생들의 교육 복지 자신의 진로와 맞는 교육을 받고 스스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 특성화고·예고 등의 고등학교 신설을 유치바랍니다.

[주요내용]

파주시에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파주시와 부지를 선택하고 어떤 특성화고를 설립할지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파주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한다.

[소요예산]

한 학교에 설립되는데 드는 예산을 찾아봤다.

경비 약 350억, 부지 약 200억, 시설비 약 150억으로 약 700억 정도 든다.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연령별 인적자원 활용 관련 지자체별 개별 대책 마련

[제안이유]

- 인구 감소로 인하여 총 노동공급량의 감소 예상
- 연령(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매칭 필요

[주요내용]

- 지자체별 인구 구성을 감안한 단위별 노동 수요 파악 후 노동 공급 예측을 통한 공공-사적 부문 취업 인원 목표 설정
- 연간 단위 기본 계획 입안 후 분기별 실적 평가
- 1년/3년/5년 단위로 시행 실적 종합 후 운영에 따른 보완점과 개선방안 도출

[소요예산]

- 월 단위 최저임금 × 1.5 (4대보험 및 제반비용) × 취업 인원 (지자체별 상이)

[재원조달방안]

- 고용안전기금 집행
- 세수가 충분한 지자체는 자체 조달
-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는 여유 지자체 자금 활용하거나 국가에 교부금 신청
- 국내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경우, 해외 인력 파견 검토 및 해당 국가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한 재원 창출 필요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교육 개혁[혁명]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경쟁을 유도하는 교육은 이제 그만, 우리 청소년들에 행복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시절을 되돌려주세요)

[이슈의 도출[배경] 근거]

1. 한국의 경쟁만을 유도 수능 체제의 교육현실
2. 교육비의 지나침 부담[이로 인한 많은 부작용]
 - 결혼적령기의 청년들 미혼 및 출산율 감소
 -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악화 및 일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감소[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 야기] 즉,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비 부담의 감소의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타 등등 우리나라의 미래의 존폐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반드시 교육 개혁 및 교육비 부담 감소는 반드시 국가적인 관점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함.

[교육 개혁[개선] 방안]

1. 온라인[비대면] 교육 활성화 - 전면 활성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언제든지 바이러스나 기타 다른 문제로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하는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미래에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음. [그래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사설 교육 - 국가가 흡수 현재 EBS 와 같이 공인 플랫폼을 만들어 누구든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접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듦. [기존의 일타 강사나 유명 강사들이 이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즉 누구나 배우고 싶다면 비용 없이 일타 강사나 모든 주제에 대해서 묻고 배울 수 있는 양방향 플랫폼 [교육계의 유튜브]을 만들어야 함. 기존 오프라인 학교의 역할에 대해선 창의적인 특활활동으로 변모 기타 등등 논의 필요.

2. 대학이라는 공간 또한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 및 무상교육

기존 방송통신 대학과 [특수 대학원 제외] 대학을 가기 위한 수능 시스템을 변경하며 누구든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만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을 갈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시기 또한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여 입학 가능토록 함 추가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은 특수 대학원을 통해 보완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중학교 설립이 시급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세권에 현재 1지구 6천 세대 아파트세대가 거주중이고 2지구가 분양 및 건설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가 과밀직전인 상황이고 중학교는 도보 25분 걸리는 곳에 타구역 학생들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제일 가까운 성지중은 추첨식으로 한얼초 졸업생 중 일부만 갈수 있는 상황이라 많은 졸업생들이 원거리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을 등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의 신규 대규모 단지 세대의 2/3가 유아나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인데 단지 저출산 시대라는 이유로 아파트는 어마하게 난립되는 이곳에 어린학생들이 생똥맞은 타지역 중학교까지 고생고생하면서 등교할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주민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은 나 몰라라하는 경기 용인시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탁상행정에서 질려버린 상황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교육행정을 동일시 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따라 어린이들의 수요에 맞춰 신규학교설립에 대해 적극고려하고 민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지금 당장 신규중학교 설립 추진요망!

저출산정책 한답시고 출산장려금 짚끔 넣어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뿐인 공약은 이제 그만!!! 실리적인 정책실현은 언제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될 수 있을까요.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평등한 교육 수준의 제공

요즘 빠른 정보와 다양한 정보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에 따른 교육의 편차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평등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 슝쓸해지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 중심의 교육의 질 상상을 도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쪽집게나 과외 등 그런 선생님들처럼 교사의 교육수준도 올라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학교선생님의 교육만으로도 다양한 지식의 이해가 쉽도록 교육하는 교육능력을 향상시키고, 좀 더 개개인별 체계적인 교육방법과 다양한 강의 스킬을 습득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연봉 몇 백억을 버는 온라인 학원 강사는 수업에 수백 명이 들어도 집중하게 만드는 능력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가르친다 소문이 나고 수입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국가시험을 통해 교사가 되고 평생직장을 얻었음에도 교사라는 명예를 저버리고 나태하게 돈벌이로 생각하는 일부 교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교사들의 교육방법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가 좋지 않으면 연수를 통해 새로운 교육방법이나 문제점을 파악해 교육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평가제도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평등한 교육, 질 좋은 교육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를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공공질서 지도 및 계도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법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보도에서 보행 중 흡연을 하여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하철에서 우측보행을 준수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보행하여 다른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 버스에서 뒷문으로 승차하거나 지하철에서 승하차 순서를 지키지 않아 대중교통 운영을 지연시키는 행위,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택시 및 택배차량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묵인한다는 등,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나 다름없는 행위를 본인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으로 어겨 사회가 정한 마땅한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온/오프라인 공공질서 유지 캠페인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지도 및 계도 활동으로 조금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부산 문화관광 활성화해주세요

[제안이유]

전시회나 박물관 등 서울에 비해서 물론 부족한게 많을 수도 있지만 월등히 부산이 적습니다.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활성, 지역활성, 일자리창출 이 세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삼조라 생각합니다.

[주요내용]

전시회, 문화관람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조성해주시고 작가, 관람물을 활성화 해주시고 건축도 가능하게 되면 지역활성도 될 것입니다. 최소 5년 안으로 시행해주시고 이번 6월 선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문화활성이 서울보다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 또한 지역활성 -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소요예산]

10억~20억 예상

[재원조달방안]

연초에 작성한 예산액을 지역활성에 사용해서 불필요한 재정낭비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땅 공사보다는 훨씬 이득일거라 생각합니다. 부산문화진흥원 등 문화 관광 관련 예산 추경 하고 한 해에 모든게 이뤄지는게 아니라 5년에 걸쳐 총당금 등을 모아서 적립한다하면 가능 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광공사 등 부족한건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도 예산을 잘 조정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사천시가 운영하는 낚시테마파크

1. 사천시가 운영하는 낚시테마파크

현재 남해 사천이 불균형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해나 사천에 거대한 해양테마파크 - 낚시테마를 넣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요즘 낚시가 굉장히 유행이고 낚시 인구도 많습니다. 낚시 인구를 자연스럽게 사천으로 오게 하고 무분별하게 낚시를 하지 않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요. 낚시를 가족이 와서 편하게 접할 수 있고 해양레포츠나 대형 노천 스파도 같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면 좋겠어요. 낚시 + 해양레포츠 + 대형 노천 스파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가족이 와서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사천 케이블카를 타고 남해로 바로 관광하러 넘어갈 수 있게 한다.

남해와 사천의 지역적 불균형 발전에 새로운 경제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항공레포츠를 좀 더 발전시킨다.

삼천포 쪽으로 경비행기나 패러글라이딩 등을 이용을 더 많이 할수 있게 하는거죠.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삼송 마을에 반려동물 전문 도서관 건립을 문의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반려동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나, 반려동물이 입장 가능한 고양 스타필드를 보다 보면, ‘반려동물 가족 100만 시대’ 라는 말이 막중하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들과 함께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더 난무할 것이라면,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빌려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비반려인들도 반려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서적과 자료들을 전문으로 다루며, 서로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서적을 포함한 시청각매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도서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동물친화적인 도서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제가 사는 삼송마을은 창릉천이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곳으로,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과,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물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창릉천에서 6분 정도 더 걸으면, 강아지와 함께 입장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고양 스타필드점이 있습니다. 반려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이곳이라면, 전문 도서관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세계의 최신 동향부터, 검증된 지식이 담긴 서적을 빌려주고,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모두에게 제공한다면,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운영할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품이 보인다고들 합니다. 인품이 모이고 모인 것이 사회라면, 반려동물 세상이 오고, 그 세상에 발맞춰 동물들을 위한 복지와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꾸릴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용 도서관 건립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초·중·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숲 산책 시간을 주세요

초·중·고 학생들에게 숲 산책 할 시간을 주세요. 자연은 어른이나 아이들에게나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책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류하고 컴퓨터 놀이에서 자연속의 생명들과 만나고 교감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들에게 산책 할 시간을 주세요. 아직 자연에 관심이 덜한 청소년기에 개인적으로 산책은 어려우니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시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의 정서와 감성의 바탕이 되는 숲 산책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숲 해설가나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굳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동행하여 리드 한다면 아이들이 숲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끌고 궁금해하는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려주며 숲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숲과 함께 하며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며 자란다면 세상이 숲처럼 조화로워지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동양동에 건강 - 체육센터 만들어 주세요

건강 - 체육센터를 건립해주세요

동양동은 새롭게 조성된 동네로 늘어난 인구에 비해 문화, 체육 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처에 테크노밸리 지역이 토지보상을 거의 마치고 시공을 준비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동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문화

체육센터를 테크노밸리 건설공사에 계획을 수정 또는 신설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국세와 계양구청 예산을 확보하여 설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문화체육센터가 없는 박촌동, 굴현동의 주민들도 이용가능한 장소로 위치하여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동양동은 2007년 주공아파트 완공 이후 주변 개발로 꾸준히 인구가 늘어 주변 아파트 단지와 빌라의 증가로 5만명을 넘어선 동네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문화, 체육 시설은 미비하여 그 수요가 많습니다. 동양동은 인구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도 새롭게 만들어졌으나 주변 인구지역과는 논과 밭 등으로 고립되어 섬처럼 외롭게 떨어져 있고, 다른 지역의 문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공약 : 종로구만의 특색과 차별화를 잘 살려 종로 관광문화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① 전통과 현대의 조화거리

전통의 오래된 맛집, 레코드가게, 공예나 골동품 판매점, 찻집, 한복점등 전통의 오래된 가게와 함께 고층건물과 전통의 거리가 잘 조화된 거리기에 근현대사의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 주는 거리이기에 그 특색 잘 살려 전통과 현대의 조화거리로 구성해보겠습니다. 영업장 중에는 아예 중단돼서 방치된 곳도 많은데 이 특색화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과 철거를 통해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가급적 한곳으로 집결시켜 시너지 효과와 함께 많은 관광객이 발길을 모아 보겠습니다.

② 종로 젊음의 거리

경복궁역 주변은 상명대, 배화여대, 국민대 등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이기에 젊은이들이 관심 있어할만한 복고풍의 카페나 음식점, 한복거리, 악세사리점, 공예, 국악 등 우리전통 문화를 잘 느끼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해 보겠습니다.

③ 종로 레트로 감성의 거리

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 낙산공원, 주변은 60-70년대 드라마를 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 많기에 실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 같은 이발소, 대포집, 미싱가게, 슈퍼, 만화집 등의 입점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지역 일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종로구만의 특별한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자원, 관광거점 등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도시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도심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소요기간 및 예산, 기대효과]

2-3년 내 사업 기간이면 충분하므로 다음 선거에서 종로구민의 선택을 받는데 저만의 좋은 공약 이행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도심재생사업, 문화활성화사업 등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에 따로 예산책정은 필요 없고 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세수증대 주민들의 복지 및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대구 원도심 골목길 투어 및 상권의 활성화

[현황]

대구 중구 남구는 과거 대구의 중심지였지만,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실거주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야간에는 어둡고 유동인구 감소로 주민들의 치안 관련 민원도 적지 않고 일반 상가의 공실은 물론 주택 노후화 및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안]

구도심의 골목길 투어 코스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섹션을 지정해서 서성네거리 주변의 근대문화투어 거리, 달성공원과 국채보상으로 주변 벽화거리, 구수한 빵냄새와 커피냄새가 오감을 자극하는 대명동 베이커리 거리, 앞산자락길 피톤치드 거리 등 각양각색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골목길들을 보다 더 특화시켜서 아날로그 감성이 잘 샘솟는 골목길 여행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에 밀려서 점점 사라져가는 골목길의 추억을 잘 간직한 곳 그리고 산동네 같은 풍경을 도심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곳 최근 복고풍의 인기에 잘 대응시켜 대구만의 뉴트로 여행지를 개발해 복고여행의 성지로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도심재생과 관련된 SOC 예산의 배정 및 민간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보다 더 넓히고 기존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부처 간 사업을 앞서 언급한 골목길 투어코스 의 장소 중심으로 재편해서 활용하면서 민간 자원 투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성될 경우 많은 관광객이 오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이 직접적 참여와 함께 민간투자를 적극 발굴하여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

골목길을 중심으로 공간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와 삶의 감성을 잘 접할 수 있게 하고, 도시의 확장과 개발로 자칫 잃어갈 수 있는 대구의 과거와 현재로까지 이어지는 시간, 그리고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까지 낙후된 원도심 고유의 정체성을 재해석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디자인으로 매력적인 명품도시 대구를 재창조하는데 있어 그 좋은 선행모델 사례로서 대구 중구 남구가 그 좋은 모범 자치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외국인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대

1. 관광대국을 목표로 가고 있음에도 관광에 대한 정보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한국에 관광하기 좋은 숨겨진 장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명동이나 강남역 등의 코스만 가게 되는 현실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우선 민간과 협력하여 접근성이 좋은 서울 관광지 소개 홈페이지, 어플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하고 포멀한 스타일의 홈페이지 보다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틱톡 등의 숏폼 동영상 스타일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한글로 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서울의 가볼만한 곳을 소개한 글들을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인의 시각에서 쓰여진 글들을 번역하고, 또 현지인에게 인기가 많던 곳들을 새롭게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감에 따라 관광대국 위치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TBN 전남교통방송 설립해주세요!

전남은 교통사고 치사율 전국 2위, 사망률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97년에 개국한 TBN 광주교통방송만으론 전남권역을 아우르는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전남에서 일어나는 최신 교통정보도 얻지 못하고, 교통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TBN 교통방송 설립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전남은 전국에서 TBN 교통방송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게 되었죠. TBN 전남교통방송이 설립되면 전남지역의 최신 교통정보와 전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TBN 전남교통방송을 하루라도 빨리 설립해주시요.

방송국 예상 신축 위치는 현재 사후 활용방안 되고 있는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내에 건립되고, 소요예산은 정부예산 250여억 원, 신축비용은 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정부(기재부) 예산으로 총당합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부평구 공병부대 부지 복합쇼핑몰 유치

인천광역시 부평그랑힐스 입주예정자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전반적으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쇼핑시설은 매우 턱없이 부족하죠. 공병부대 부지 복합쇼핑몰은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는 부평구민들이 오래전부터 복합쇼핑몰 유치라는 목적으로 시민 3천여명 이상이 청원을 넣기도 하였으며, 입지로서도 최고의 위치입니다. 부평구 내 복합쇼핑몰 유치로 인해 낙후된 지역상권을 활성화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부평구의 지역 외(주로 부천) 소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으며, 도시경쟁력 또한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의 대단지 아파트들의 입주시기인 23년을 기점으로 부평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으로 이에 걸맞은 복합쇼핑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로 부평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본 지역구의 의원들은 반드시 본 내용 유념하시어 공약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의 폐건물 완전철거 및 호수공원 조성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는 미군으로부터 최근에 반환된 땅이 있습니다.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부평구에 이 땅은 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이 건물들이 가득한 공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군이 쓰던 폐건물들은 모두 철거하고 부평의 질을 높여 줄 호수공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수만명의 부평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들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 조성시 주민 삶의 질 증진에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폐건물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준치를 훨씬 넘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정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수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국방부나 환경부에서도 건물을 철거해야만 제대로 된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9000명이 넘는 4차례의 청원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약에 제대로 반영하여, 부평 구민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기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인천 내항

저는 인천 중구, 동구에서 초, 중, 고를 나왔으며 내항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날이 좋은 날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내항뷰는 그 어느 외국 부럽지 않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곳을 바라만 볼 뿐, 누비지 못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아쉬웠는데 이곳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소식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작은 의견을 건의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여행을 다니다가 부러움을 느꼈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 한 번은 뉴욕 센트럴 파크를 갔을 때였습니다. 특히 센트럴파크에서는 노인분들이 DJ가 트는 클럽 음악에 맞춰 롤러를 타고 있었고, 드물게 젊은이들도 합류하여 같이 롤러를 타던 모습을 봤었습니다. 물론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세대가 어우러져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자유로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그 어느 유명한 해외 관광지 부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내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를 합니다. 하여 이 곳 내항은 이곳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살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PLLEK 라는 복합 문화공간을 모티브로 가꾸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곳은 컨테이너와 타워크레인을 활용한 인테리어로 여러 레스토랑과 문화활동, 여가활동을 즐기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 모두에게 핫한 공간입니다.

서해바다 라인에는 각 지역별 작은 랜드마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에는 인공서핑장, 송도는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이곳은 중구청 아트센터를 내항쪽과 연결/확장시켜 인천의 할렘, 베를린, 암스테르담이 되어 데이타임과 나잇타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비층을 확대시켜 여러 세대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여러 주변 대학가의 학생들을 서울로 빠지는 게 아닌 이곳으로, 인천공항에서 서울이 아닌 이곳으로 시선을 집중 시켜 보다 건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생활을 선도하는 인천이 되길 바랍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지하철역을 문화와 환경보호의 공간으로!

늘 지하철을 이용하며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 감사한다.

출퇴근 시간이나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구의 지하철 공간은 넓다. 이곳을 낮에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① 병뚜껑 모으기(따로 모으지 않음 재활용 불가) ② 샴푸나 각종 액체 세제, 기름 등등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에 일정 공간을 이용하여 환경보호에 나서야합니다. ③ 인력은 노인취업과 봉사활동으로 자긍심과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④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간단한 포크댄스를 추는 시간이 있기를 바래요. 춤이, 특히 파트너와 추는 춤이 치매예방에 최고라서 모든 뇌 과학자들은 일주일에 며칠은 꼭 파트너댄스를 춘답니다. ⑤ 그럼 이춤은 대중적이고 간단해야합니다. 어릴 때 국민체조처럼 국민포크댄스를 보급해야 합니다. 의료비도 줄 것 입니다. 보험회사도 좋겠죠. 이익을 보는 단체의 도움도 받아봅시다.

지하철을 오갈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이런 제안 꼭 부탁드립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서울시 오래가게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종로구가 그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상황 및 구체적 제안]

종로구의 경우 근대화를 거쳐 지금까지 서울의 중심 역할을 해왔기에 지나온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특별한 사연을 간직한 오래된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모습 그대로 대를 이어서 영업하는 곳, 종로구민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보물로써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들 음식점, 이발소, 양복점 등등 영업방식이나 내,외부 모습 그대로 간직한곳이 많은데 그 중에는 현재 폐업중이거나 제대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임대 공실률이 높은 곳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책실행방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래가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종로구가 그 오래가게를 대표하는 특성화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가게 중에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리모델링 할 것을 리모델링하고 유흥자산의 경우 매각이나 임대 등을 통해 최대한 매매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고 있는 오래된 가게와 전통시장 등의 빈티지 로드 조성의 종로 관광문화특구사업을 당선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오래가게들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상품화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이끌겠습니다.

[기대효과]

침체된 부동산 매매의 활성화 및 지역상권을 부흥시키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고용창출과 함께 종로구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정책에 소요되는 자원, 예산조달방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따로 區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은 크지 않을 것이며 유흥자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을 통해서 얻은 수익도 사업비 일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지역민 소득향상 고용창출 관광수입등도 기대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도 일부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엘리트체육선수들의 대회출전 결석 허용일수 축소 폐지

현재 초·중·고 엘리트 체육선수들의 미래는 없다.

탁구 선수 신유빈 학생은 뛰어난 기량과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위선양 하고 있는데 신유빈 학생은 자퇴를 했습니다. 왜? 대회출전 결석 허용일수 축소로 인하여 말입니다. 일반 학교를 자퇴하고 대안학교를 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현실에 맞지도 않는 엘리트체육선수 (초·중·고)들의 결석허용일수를 축소하여 매우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엘리트 선수들 코치 감독 대한체육회 관계자 및 관계(체육)대학교 교수님의 의견도 묻지 않고 탁상교육행정으로 대한민국 꿈나무들을 죽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본의 아니게 자퇴를 해서라도 실력향상을 위해 미래를 위해 국가를 위해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는 참 어이없는 현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트 체육선수들은 그들의 재능과 노력보다 결석 허용 일수 때문에 학업을 운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교육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도 학업도 뺏는지 참 애석할 따름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희생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또 믿음을 주어져야 비로소 세계적 선수로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엘리트 체육선수 아이들이 운동도 공부도 또 미래의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엘리트 체육선수 결석허용일수 축소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건강하고 활발한 강북구를 위한 공약제안

건강하고 활발한 강북구를 위한 구민 건강증진 지원

▶ 체육시설 이용비용 환급

제안이유 : 코로나로 인해 국민 체력 감소&비만율 상승하였고, 서울 다른 도시에 비해 비만율이 비교적 높은 강북구를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기 위함

무엇을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비용 환급

어떻게 : 1달에 10만원 이상 결제시 1만원 환급, 기간 내에 1인당 2회로 횟수제한, 달마다 선착순 1000명

언제까지 : 2022. 07 - 2022. 12 / 6개월간

소요예산 : 달에 1,000만원 총 6,000만원 예상

▶ 다양한 운동영상 제작

제안이유 : 시간부족, 비용부족 등의 문제로 체육시설 등록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집에서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영상 제작

무엇을 : 강북구민들이 운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앱 제작

어떻게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르쳐주는 영상 촬영사이트&앱 내 업로드

언제까지 : 기간 제한 없이 운영

재원조달방안 : 강북구민만 무료로 이용가능, 다른 구민은 저렴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창출, 유지

건강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

▶ 강북문화예술회관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과거 아이들을 위한 영화, 뮤지컬, 연극 상영과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수업(수영, 헬스, 공예 등등)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문화프로그램들이 사라지거나 축소되었고 그 결과 전보다 활기를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문화생활과 지역생활상권의 상생을 위한 문화복지제도 요청

현재, 많이 오른 문화비용(영화비 13,000원 이상, 아날로그책 15,000원 이상)으로 인한 오프라인 문화생활이 쇠퇴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정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소득층뿐만이 아닌 일반가정에게도 많은 문화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소득층의 기준에도 문화비용은 현재 많이 오른 상태이며, 비용적으로 지나치게 상승한 면에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문화로 변해가는 점. 온라인문화(넷플릭스, 전자책)의 잦은 이용으로 인해 지역문화상권(서점, 영화관, 등)이 쇠퇴하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문화(영화, 공연, 서점, 뮤지컬, 등)를 좀 더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층에게 문화 복지제도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제공한다면 온라인문화와 오프라인문화가 같이 상생하게 되고, 오프라인 문화생활을 통해 지역문화상권뿐만 아닌 지역생활상권(식당, 카페, 도서관, 등) 역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이 정책이 채택되어 적게나마 복지혜택으로 돌아와 지역민에게는 혜택을, 상인들에게는 활성화가 되는 상부상조하는 현상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부산 남구소방서 설치 공략!

(소방서를 119안전센터와 같은 말로 취급하겠습니다.)

인구 81,104명 남구 용호동에는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없습니다.

인구 46,203명 남구 문현동에도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없습니다.

문현동의 경우 엄청나게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지만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자집과 주택밀집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소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호동의 경우 인구가 밀집해서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발 빠른 출동이 필요한데 소방시설이 없어서 매번 타동에서 출동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부지를 마련하고 2년 안에 두 동에 소방시설 건립을 할려고 합니다.

재원조달의 경우 이제 코로나로 인한 보조금 지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코로나 예산을 활용하며 주민들의 기부도 받을 예정입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실효성 있는 육아 복지 정책

실효성 있는 육아 복지 정책을 위해 힘써주세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은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남자든 여자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도는 있지만 육아휴직은 여자가 받는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남자가 받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눈치를 주거나 승진 제한, 부서 이동 등 불이익을 주는 회사가 많아요. 특히 중소기업은 분위기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부부가 함께 키우는 것이기에 육아휴직 제도 또한 동일하게 주어지고 무엇보다 기업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어떻게 육아휴직을 받아~가 아니라!! 부부의 성향이나 경제적인 요건에 맞게 부부의 상의 하에 누가 육아휴직을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담배꽂초를 버릴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버려진 담배꽂초에도 유해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담배꽂초가 길가에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 담배꽂초를 버릴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첫째, 어린이나 길고양이 등이 버려진 담배꽂초에 호기심이 생겨 만지거나 먹을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담배꽂초를 먹었다면 담배꽂초 안에 유해물질 때문에 병의 걸릴 확률이 크고, 그저 만졌다 해도 그 안에 있는 독성 때문에 만져서도 안 됩니다. 길가에 흔한 길고양이, 비둘기 같은 동물들이 버려진 담배꽂초를 먹이로 봐 먹고 배 속에 담배꽂초가 많이 차게 된다면 병으로 죽고 이것들이 반복돼 생태계 문제가 됩니다.

둘째,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꽂초가 호수나 바다 등으로 떠내려갑니다. 담배꽂초에서 물과 섞여 나오는 침출수 영향이 큼니다. 침출수의 독성은 수생 생물에게는 거의 치명적이어서 생태계에도 문제가 됩니다. 바다로 내려온 담배꽂초가 어류의 몸속에 쌓이고 결국엔 그 어류를 섭취한 사람의 몸에도 들어옵니다.

그 외 길가에 버려진 많은 담배꽂초들로 인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를 위해서라도 담배꽂초를 버릴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아이스팩을 공공기관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해주세요

인터넷 쇼핑이 발전하며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을 택배나 당일 배송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이나 드라이아이스를 씁니다. 드라이아이스는 기화해서 없어지니 문제가 없는데 아이스팩은 특수한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일반인이 버리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소비성 물품도 아닌데 재활용 할 수 있는 멀쩡한 걸 버려야 합니다. 양이 적으면 집에 보관하고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며 양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극소수 기업이 단기간에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시나 구 단위에서 이걸 공공기관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만들어서 수거 후에 업체에 공급해서 업체는 비용을 줄이고 택배로 다시 이용하면 자원순환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동물권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과 동물학대 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학대 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시고, 정부 주도적으로 동물권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세요.

2018년 3월 22일 제시되었던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제 38조에는 다음과 같이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환경, 그리고 동물과의 공존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간 동물보호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부진함 속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는 법의 눈을 피해 점차 고도화 되고 지능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지난 4월 26일, 동물 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동물학대 행위로 간주하는 범위가 넓어지긴 하였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나 대책이 그대로여서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제정하여 동물학대 등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인간과 공존하는 동물들의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해 주십시오. 스위스나 독일, 여러 선진국들을 봐도 동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곧 사람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사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 위의(야생의) 동물들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시고, 정부 주도적으로 동물권 신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동물권 보장이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동물 보호 단체나 동물 관련 사업에 관해서는 재정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횡령 또는 낭비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할 것입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청주시 흥덕구) 청소년 플로깅 캠페인 X 복대동 솔밭중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현수막 및 360 CCTV 설치요청

안녕하세요, 복대동 청소년 환경지킴이 미션파서블팀입니다.

저희는 작년 9월부터 한 달 격주로 토요일 오후에 흥덕구 복대동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건물 입주민께서 민원신고를 부탁하셔서 글과 사진을 청주시 흥덕구청 자유게시판에 계속해서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건물 주차장 구석에 적치된 쓰레기양이 너무나 방대하여 우리 청소년 플로깅 팀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합니다. 심지어 적치된 쓰레기는 대부분 불이 붙기 쉬운 비닐과 화재시 독성 연기를 내뿜을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 많아서 화재발생 시 청소년 밀집 지역인 학교 주변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아직까지 바람이 심하게 불어 화재 발생 시 주변으로 번질 우려도 많습니다. 솔밭중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밤 10시 넘어서 담배를 피우러 이곳에 오기에 만약 담배꽂초에 작은 불씨라도 남아 있으면 화재 발생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소는 복대동 3207 입니다.

이 외에도 솔밭중학교 근처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도 담배, 담뱃갑, 홍보용 포스터 등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격주로 플로깅 활동을 하며 항상 들러 쓰레기를 줍는 곳임에도 언제나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길바닥을 구르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쓰레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골목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과태료 부과 현수막을 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109번길 12을 비롯한 주변 골목입니다.

더불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곳에도 쓰레기가 많은 양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360도 회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쓰레기 투척 방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지방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바쁘신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동네 복대동 쓰레기 무단 투기/투척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꼭 애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요청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영양보호사 모두 항상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며 업주는 정부지원금 내에서만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저임금이며 기타 수당이나 복지혜택 등이 없습니다.

근무 또한 복지계 관습이라며 주 40시간이라는 부분을 악용 주말공휴일수당을 일체 주지 않고 있으며, 교대근무를 핑계로 인계를 위해 일찍 오는걸 당연히 여기고 복지시설에 돈이 없다며 추가근무를 강요하면서도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반발하거나 이의제기시 근무표 불이익 재계약 없음. 심한경우 원장들 단톡방에 공유까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을 위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의무사항으로 임금은 현실적으로 수당 및 휴일근무도 수당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본임금은 복지부에서

정부지원금 조정 추가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면 서로 부담이 줄 것 같습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대구의료원 이전 공약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구 지역의 대형병원이 특정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대구 중심에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동산병원

서구에 가톨릭대학교병원

칠곡에 칠곡동산, 칠곡경북대

3차 대형 종합병원은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동구는 2차 병원인 파티마병원이 유일한데 그것마저도 동구의 끝 사실상 대구 중심가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구 지역주민들 특히 반야월 지역 주민들은 종합병원 이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서구에 있는 대구의료원이라도 동구 반야월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동구 주민들 그리고 인근 시지와 영천시 주민들까지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병원 부지는 동구에 율하역 인근, 혁신도시 인근 등 놓고 있는 부지가 충분하고 병원을 새로 짓는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비교해서는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노후화 개선

[제안이유]

이천시는 서울 인접한 도지구로서 전국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수도 20만을 넘어 30만을 달려가고 있는 경기도 주요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80-90년대 지어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은 리모델링조차 없이 노후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및 터미널 창구 그리고 버스타승 구역 등 도시는 발전해가고 있는데 터미널은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바로 옆 안흥지구는 몇 천세대의 주상복합 및 아파트가 분양 계약되어 지어지고 있는데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 보입니다.

22년 계획하고 23~24년 개선하여 이천시가 수도권인근 중심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요예산]

약 50억

[재원조달방안]

시 예산으로 확보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모야모야병에 대한 처리

아이들은 성장했을 때 성인이 되면 국가의 일꾼이며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사회적 가치가 큼니다. 하지만 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지원보다도 건강을 위한 배려가 우선이다 생각을 합니다.

2019년 11월, 12월(당시 딸 나이 만 10세) 두 차례에 걸쳐서 12시간 넘게 희귀난치성 질환 모야모야병(이유를 알 수 없는 뇌혈류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수술을 피하고 싶었지만 심각한 증상(증상이 한번 나타나면 3-4시간 마비, 뇌출혈 및 뇌경색의 위험)과 함께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하여 수술을 시켰습니다. 수술하고도 증상은 있었지만 수술하기 전 증상보다는 그나마 좋아 보였기에 좋아지겠지 하고 약 2년간 병 간호에 힘썼습니다. 이제 딸아이가 커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만 가면 각종 없던 증상이 나오기까지 해서 여러 번 병원에 갔습니다. MRI, MRA, 혈관조영술, 스펙트 뇌혈류 검사, CT 뇌혈류검사 등 교수님 하시는 얘기가 모야모야병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 각별히 주의를 요하라고 하더군요. 또한 없는 증상 중에 손이나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꾸 몸 여러 부위에 뭐가 붙어있다고 딸이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며칠 쉬게 하면 증상발현이 확연히 떨어지더군요. 의무교육인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보내면 증상이 나오고 여러가지 학교교칙에 맞게 진행하자니 담임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등 여러가지 힘든 점이 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딸의 생명을 아끼는 아버지로서는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중,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따야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무슨 일이라도 할 텐데 걱정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1년간 60일 이상 결석하면 유급이 됩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에게는 이것도 부족한 듯 보입니다. 그러니 제발 모야모야병 환자 아이들에게는 학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없으니 졸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결석 제한도 좀 풀어주시고 몸이 좀 관찮아지면 다시 조금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서 학교는 졸업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특수학교나 기타 검정고시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기 이전에 학교에 행정적인(결석제한 풀어줌) 배려로 인해서 학교나 학부모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십시오. 너무나 삶이 힘듭니다. 건강했던 제 마음도 우울증이 찾아와서 심지어 자살하고픈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시는 정부관계자 분들 시민 여러분들 도와주시어 졸업장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기후와 환경을 위한 노플라스틱 정책 제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기후·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강을 위해 본 정책들을 채택·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제정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 지원

- 세탁수 필터링 상용화를 위한 기술과 장치 개발 지원
-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혁신 기술 발굴 및 도입 지원

3.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기업 지원 및 육성

- 스타트업 창업이나 클라우드 펀딩 사업 등 지원 및 육성

4.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최소화
- 종이팩 분리배출·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 종이팩 재활용 확대와 개선 위한 생산시설 기술 지원 및 투자
-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개발 지원
- (공공부문 솔선수범 통한) 재생 휴지 등 재활용 상품 사용 확산
- 재활용 및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발굴·확산
- 미세플라스틱 유해성과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 분리배출·재활용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영유아 야간진료가 시급합니다

거창 청년들 결혼장려금을 주면서까지 결혼을 장려하면 뭐입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을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야간이 아니더라도 정상 병원진료시간 이후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난감하셨던 적이 한 번씩은 모두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영아 야간 진료를 보던 서경병원 응급실도 없어져버리고 거창적십자병원 응급실은 소아과 담당의가 아니라 너무 어려서 봐줄 수가 없다며 돌려보내는걸 알면서도 급하니까 찾아가지더군요. 영아 야간진료를 하는 대구병원을 가르쳐주시며 급하면 그 쪽으로 가보라는 말만 들었네요. 정말 더한 응급상황이면 대구 도착 전에 애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린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이래서 도시에 살아야하는구나... 너무나도 뼈저리게 피부로 와 닿네요.

군 인구 유입을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게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아과 병원들과 그 외 병원들을 순서를 정해서 최소한 매일 한군데는 영아 야간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병원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창군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 외 관련 부서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복지 도입과 환경개선을 제안합니다

1. 당진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당진시는 인구 17만이지만 당진종합병원 외에는 동네의원이 즐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응급 의료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아 응급 시 당진에서 순천향대학병원을 이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물리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가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과 병동이 설립되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내 병원으로 자리 잡아 시민의 편의성이 증진되길 기원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하더라도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개선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2. 주차난 및 도시환경재생

<주차난>

주차난은 어느 시도나 고민하고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진시는 도농복합도시라서 그런걸까요? 유난히 불법 주정차가 많고 관리가 잘 되고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도심이나 신설상가 등 유난히 번잡스럽고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가끼리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용주차장이 있으나 그 또한 매우 협소하여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 당진시 줄다리기 축제를 생각해보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맞는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차난에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드코로나인 현재 올해 다시 줄다리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소중한 지역의 문화유산,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환경조성 및 주차난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문화공연이 있을 때에는 당진문예의전당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나 수용 차량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주차타워 설립 등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재생>

도시환경재생의 의미가 제가 원하는 부분에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걷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아이들이 있기 전에는 보도블럭이 그렇게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유모차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게 인도가 만들어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길가 쓰레기통 설치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아 쓰레기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길가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해봅니다. 그럼 왜 쓰레기통을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 날이 갈수록 쓰레기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일부는 치워지지 않고 방치됩니다. 쓰레기통 설치 자체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쓰레기는 사람이 치워야 하기 때문에 미화원의 수를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듯합니다. 자기 집 쓰레기를 들고 와서 버리는 경우도 많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쓰레기통 설치 후 홍보와 함께 관리, 유지, 사용법에 대해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에 배포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서초구는 2012년부터 대로변에 설치된 거리 쓰레기통 140개를 모두 없앴습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으면 무단으로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주민들이 많아져 도로가 더 지저분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서초구 거리 전체에 쓰레기통은 단 2곳뿐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100m 마다 쓰레기통을 설치한 강남구에는 유동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지만 강남 휴지통 주변에는 쓰레기가 조금 있지만 도로는 전체적으로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이 없는 서초구는 도로 중앙과 가장자리에 설치된 화단에 구겨진 전단지과 명함, 담배꽂초 등이 곳곳에 눈에 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길가에 쓰레기가 많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와 같은 정책 공약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3가지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1. 버스정류장

①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의자난방과 선풍기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는 버튼을 만들어서 시간 설정해 놓고 직접 눌러 쓸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② 비와 바람 가림막도 필요합니다. 목포에 살게 된지 7월이면 1년인데 버스를 이용하다보니 다른 시군에 비해 버스정류장이 많이 뒤쳐지는 것 같습니다. 남쪽이지만 바람 안 부는 뜨거운 한 낮 빼고는, 기온도 낮은 편인 것 같아 구도심의 버스정류장들은 어르신들은 물론 학생들, 일반 시민들도 불편해 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 배출

아파트 외에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된 통을 쓰는데, 내놓기만 하면 깨져 있기 대부분이고, 심지어 3일을 내리 깨진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집의 대문 앞도 보니 같은 이유로 제대로 된 통이 몇 개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같은 이유로 운이 좋으면 몇 달을 쓰지만 대부분 저와 같은 이유로 한 달에 몇 개를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통값에 스티커 값까지 부담스럽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방법이 곤란하다면 차라리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 비닐봉투를 쓰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맨발황톳길과 바닥분수

① 맨발황톳길 :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삼학도 공원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② 바닥분수 : 삼학도 공원은 주말이면 어린 아이들과 텐트에서 하룻밤 놀고 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시민들이 더운 날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닥분수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경쾌한 웃음소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공원의 모습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목포역이나 항구에서도 가까워서 관광객들의 마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의 삼학도 공원은 환상 그 자체입니다. 인공적인 느낌 거의 없이 자연적으로 만들고 관리해 주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끝으로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첫 아이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요즘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령 난임 부부가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체적 나이가 많다 보니 시험관으로 첫 아이를 기다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 난임 시술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가뜩이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터라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 낳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은데요.

첫 아이에 한해서는 횟수나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채취가 중단되거나 채취를 하고 공란포로 확인된 경우 정부 지원이 취소되어 100% 자비로 전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출산의 책임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마음 편히 아이를 갖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합니다.

대다수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그리고 첫 아이에 한해 무제한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부부들이 품 안에 아이를 안아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단 거주지의 화재경보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택은 상당히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아파트의 문제인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경보기가 근 두 달에 한 번 꼴로 잦게 울립니다.

입주민이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해야만 조사 중이라는 말씀을 건내시는데, 어떤 동, 호수에서 발생한 일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여, 한 시간은 지나서야 안내방송을 송출합니다.

그 결과 현재는 화재경보기가 울려도 아무도 대피하지 않고 집에서 머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비단,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상당히 두렵습니다.

아파트 화재 경보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빠른 고지시스템을 바탕으로 원인파악(어떠한 동에서 발생한 문제인지)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명확히 고지하여 혹시 모를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난임부부 지원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 세계 189개국 최하위, 늦어지는 결혼으로 인해 연령별 출산율은 35세 미만에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대 후반(25~29세) 출산율은 27.5명으로 전년보다 3.1명 감소했다. 30대 초반도 76.0명으로 2.9명 줄었고 반면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하고 지난해 35~39세 출산율은 43.5명으로 전년보다 1.2명 늘었습니다.

통계의 결과를 보면 늦은 결혼으로 인해 출산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난임 문제를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고 특히 여성의 경우 난임 치료 과정에서 10명 중 4명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휴가를 사용 못해 퇴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술비 지원도 소득, 나이별 제한과 ,단 9번의 기회만 주어지며 비급여 약품과 검사, 공난포가 나오면 치료 금액 전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시술횟수제한, 소득제한, 나이제한, 공난포가 나와도 의료비지원, 비급여 지원확대, 난임휴가 사용은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임신을 원함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며 국가 경제력의 강화에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독거노인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아는 독거 노인분을 모시고 난청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장애인 보청기 지원금을 받고자 행정복지센터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이 절차나 여러면에서 인터넷으로 독학한 저보다도 기본지식이 없더라구요.

난청에 힘드신 노인분 혼자 가셨더라면 더욱 더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지카드를 받으려고 수개월을 걸쳐 커다란 부천시에서 지정된 병원 2곳 중에 한 곳을 찾아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수차례 검사를 받은 후에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그 복지카드를 다시 병원에 제출해서 검수와 검사를 또 다시 한 달을 넘도록 받아야하는 복잡함과 번거로움을 좀 더 간편화 시켜주시고 전담민원상담사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후에 동사무소 업무를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혼자 사시는 사각지대 계시는 고연령 노인분들이나 다양한 사회소외계층에 좀 더 많은 배려를 제안합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너무 심각합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인데, 외국의 사례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일하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져줍니다.

출산 후 3개월만에 회사에 복귀해야하는 많은 직장맘들이 있습니다.

3개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나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만들어두었으나,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엄마들 많은 사람들이 1년이라는 기간을 쉬고 회사를 가면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3개월 후에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3개월 아기를 맡길 곳이 없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베이비시터(산후도우미)를 약 50일정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도 전액지원은 저소득에만 해당됩니다.

일반 소득자에게도 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산후도우미 지원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시민입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겪어 본 사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병상 확보가 되었으면 해서 글을 몇 자 적어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구요. 일반 시민인지라 소요예산 자원 조달방안의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치 못하겠으나 확실한건 그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진자들이 나올텐데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중요한 과제지 않을까요?

그리고 옥상에 119 헬리콥터 뜨게 하는 거 이것도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길래 방치하고 있습니까? 민원 들어오면 그건 사람(생명)구하는게 먼저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도 못합니까요? 언제까지 방치 해놓을 셈인가요? 이번 대선에서 단1도 그 누구도 외상센터를 늘리겠다는 공약은 없더군요. 그저 돈돈!!!!!! 돈이면 답니까?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하지만 이런 거보면 후진국 그 이상도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 안하는 국회의원 수 줄이고 의사 간호사 늘리고 병상 확보해 주시고 외상센터 수도 늘려주세요. 그리고 119구급대원 물품 부족이라던데 어느 물품이 부족한지 조사해서 119에 종사하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게 일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공공장소에는 분리수거장이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는 꼭 분리수거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공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아무데나 버리면 사람들이 버려도 되는 줄 알고 아무데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 명이 분리수거장에 버리면 모두 분리수거장에 버릴 것입니다.

둘째, 쓰레기가 근처에 많으면 보기에 안 좋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많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쓰레기가 많으면 더럽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곳을 안 가게 되고, 그곳은 사람들은 없지만 쓰레기만 많은 곳이 됩니다.

셋째, 빌라나 단독주택에는 쓰레기를 내놓을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이나 날에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가 길가에 쌓여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안 하고 섞어서 버립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지 않으면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공공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는 분리수거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수돗물 마시기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천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 회사, 단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공통의 지상과제다.

우리의 생활 중 가장 접근성이 높은 대상은 무엇일까? 바로 수돗물이다. 수돗물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탄소중립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74%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51%에 한참 밑도는 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실로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오늘도 생수병과 정수기로 인한 탄소배출은 미처 생각 못 하고 수돗물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생수나 증류수를 음용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정책당국은 서둘러 획기적 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

참고로 수돗물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같은 양으로 비교할 때 생수의 700분의 1, 정수기의 2000분의 1에 불과하다. 전기 사용량뿐 아니라 페트병 생산도 줄일 수 있다.

비록 정수장에서 고도로 정수 처리된 수돗물은 세계적 품질로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해도 정작 수돗물이 공급되는 상수도관 내부 상태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침 2022년은 수도법 개정과 고시에 따라 상수도관망 세척이 본격 추진되는 원년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에서는 획기적인 세척 예산 책정과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돗물 직접 음용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 국민들이 탄소중립 활동에 실천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

캠페인 전개를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은 전혀 필요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버스 노선 변경을 건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거주중인 18살 고등학생입니다. 항상 포항 발전에 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시 버스노선과 관련해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자민원과 같은 다양한 해결책이 있겠지만, 시장님께 직접 건의 드리는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 DM으로 연락드립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곡동에는 아시다시피 외식과 놀거리 혹은 학원 등 다양한 문화 및 상업시설이 부족해 주로 가까운 대이동이나 효자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포항시 버스노선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지곡동과 이동을 이어주는 108번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버스노선이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시청과 지곡동을 이어주는 버스 노선만 있을 뿐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이동그린빌, 이동 이마트 라인의 버스 정류장에서 지곡으로 가려고 하면 시청에서 경유해야해서, 출퇴근시간에는 경유시간이 엇갈리면 45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이동에서 지곡동으로 오는 버스의 경우 이동온천정류장에서 700번 좌석 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동은 천정류장도 상권과는 거리가 조금 있고, 3정거장 거리를 비싼 좌석 버스 요금을 지불하고 버스를 타는 것은 학생 용돈으로는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물어본 결과, 버스 노선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포항의 시내버스를 지곡과 대이동을 오갈 때 자주 이용했지만, 변경 후에는 어쩔수 없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께 아래의 사항들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지곡동과 대이동의 상권지역(이동그린빌, 이동온천, 이동 이마트 정류장 라인)을 오가는 버스노선을 신설 혹은 노선변경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가 어렵다면 추후 버스 노선 개정 시 지곡과 이동을 이어주는 버스 노선으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제 건의를 받아주신다면, 지곡동 주민들의 이동권이 한층 향상되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고, 이로 인해 상권간의 이동이 활발해져 시의 경제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청소년 위탁시설 확충

예전에 실무수습을 하면서 소년범들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옹호할 생각도 없지만 많은 범죄자들이 성장과정에서 보통의 사람들 보다 문제를 많이 겪었고, 그러한 요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년범의 처벌에 기본 목적은 교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환경 자체가 안 좋을 경우 처분으로 위탁시설 등에 일정기간 위탁하게 되는데 사실상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과 전문적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 종교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있는 위탁시설 마저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성장 환경을 개선해서 교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의 부족으로 오히려 높은 처분을 받거나, 더 낮은 처벌을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교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나마 위탁시설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형태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각종 후원들을 홍보해서 받아내고, 10~20명 정도규모의 시설이 한두 개만 늘어나도 소년범 교화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주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종교계와 연계하는 것이겠지만, 될 수 있다면 지자체에서 행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만 줄인다면 충분히 가능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 시에 경제활동에도 참여 하게 해 준다면 위탁시설 퇴소 이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할 것입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 보다는 조금 높은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0명 기준 1년에 1.2억 정도가 필요하고, 각종 후원만 활성화된다면, 시설 경영자에 대한 월급 등을 포함해도 그 이상의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4년 안에 한개만 늘어나서 단 한사람이라도 교화시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문제 해결 - 2

3. 포장재의 '선택'

일회용 포장재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정부에서도 포장재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쿠팡 등의 소셜커머스에서 다수의 물품을 주문하면 배송은 한 번에 옴에도 불구하고 각 상품이 다 따로따로 비닐에 싸여 옵니다. 파손 가능성이 크지 않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따로 포장되어 오는 상품들을 하나하나 뜯어야 하는 점이 귀찮기도 하고(운송장도 하나하나 다 떼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닐 쓰레기가 한가득 생깁니다. 상품의 파손을 막기 위한 완충재를 줄이지는 않더라도, 비닐 하나에 내가 주문한 상품을 한꺼번에 담아올 수 있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의 부담도 줄고 소비자도 행복할 것입니다.

4. 공병 무인회수기 확대

대한민국은 분리수거 제도가 매우 발달했지만, 분리수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원룸가 등에서는 사실상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유리로 된 공병은 주변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각종 주민센터에서도 종이팩, 아이스팩 등을 수거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장소까지 운반해야 한다는 점, 마트나 편의점의 경우 특정 일자에만 받아주거나 귀찮아하는 지점이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선뜻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몇 대형 마트에서는 무인회수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에 대형 마트가 없으면 이마저도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회수하는 물품이 유리병으로 한정되어 있고(일상생활에는 페트병/캔류를 더 많이 쓰죠) 유리병은 운반하기엔 무게도 많이 나가 훨씬 힘듭니다. 찾아보니 페트병/캔류 등을 수거하는 환경 지향 기업도 있습니다만, 아직 종로구에는 무인회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부 기업이 아니니 추가 설치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도하여 유리병뿐만 아니라 페트병, 캔류까지 무인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계를 많이 설치해주신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의 참여가 대폭 늘 것입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시골의 빈집 공약

시골에 넘쳐나는 빈집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공가량 플랫폼을 전국에 지자체들이 빈집 등록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빈집을 찾는 이들이 클릭만으로도 전국에 시골빈집 검색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는 해당 집을 사진 몇 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내, 외부를 모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만, 지역 유튜버를 선별, 활용해서 영상 업로드하게 하고, 링크만 걸어주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해당 업종인 부동산 협회에서 태클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가량에서는 소개만 할뿐. 임대나, 매매계약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도록 하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빈집을 소개해서 귀촌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시골로 이사 온 집이 30집이 넘습니다.

곳곳에서 귀촌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만, 빈집활용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국가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80대가 많은 시골에 30대를 유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5, 60대를 불러들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들은 시골살이를 원하고, 체력적으로도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소멸도시, 빈집활용, 균형발전, 농어촌 살리기 등등...

모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표현력이 부족하여 의미전달이 다 되지못함도 있을 수 있겠으나...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시골동네로 빈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과 경비를 줄여주고, 시골마을 빈집에 사람이 살게 해 주고 싶습니다.

시골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마트의 스티로폼 포장, 플라스틱 트레이 포장 금지해주세요

지역 마트에서 과일과 야채를 스티로폼 트레이와 랩으로 소분하여 포장하거나 투명 플라스틱 트레이 사용, pvc 비닐을 사용한 소분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티로폼은 아무리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해도 지역 아파트 수거장에서 재활용품으로 받지 않고 종량제에 버리라고 하며 페트 소재의 투명 트레이 또한 투명 페트로 분류하여 버릴 수도 없습니다. 과일트레이는 페트여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명페트, 스티로폼 쓰레기는 마트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역 마트의 스티로폼 사용, 투명트레이 사용을 금지하여 주세요.

야채와 과일을 소분하여 팔지 말고 포장 없이 쌓아서 판매하게 해주세요.

플라스틱이 넘쳐나고 기후위기로 티핑포인트 온도 1.5도까지 5년도 안남은 이 시점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을 계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분포장을 줄여서라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를 줄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법 제한이 필요합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공원에 쓰레기통을 만들자

요즘에 공원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어서 사람들은 음식물 있는 채로 땅에 버리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시민들의 무질서한 행위로 공원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에 쓰레기통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원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듭시다. 그리고 담배나 담배꽂이를 무식하게 땅에 버리는 행위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공공장소에 그런 무식하고 예의 없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통이 있으면 땅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땅에 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원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오고 싶은 사람도 정떨어지고 공원을 싫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어른들이 버리는걸 보는 어린친구들이 빨리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버릇이 되고 점점 커가면서 더욱더 그 버릇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자연문제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원은 공공장소니까 제발 쓰레기통을 만들어주세요.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공공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해주세요

거리를 지나다니다보면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캔, 비닐봉지 등등)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 계단에 쓰레기를 올려두고 가기도 합니다. 저 또한 밖에서 쓰레기를 버려야 할 때, 버릴 곳이 마땅하지 않아 곤란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전에서 쪽 살아본 결과 쓰레기 버릴 곳이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해, 그리고 위생과 청결을 위해서라도 쓰레기통 설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쓰레기통 설치 자체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쓰레기는 사람이 치워야하기 때문에 미화원의 수를 늘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듯합니다. 자기 집 쓰레기를 들고 와서 버리는 경우도 많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쓰레기통 설치 후 홍보와 함께 관리, 유지, 사용법에 대해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에 배포하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교통 문제 보완

교하 책향기로의 상가의 3갈래길(주차장, 교하중앙공원, 상가)에서 오른쪽의 상가 방향의 2갈래길 이 내에서의 도로, 교통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거리가 넓지가 않고, 주차된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적잖아있고, 주민의 무단횡단이 심하게 일어나며, 최근에는 역주행까지 보인 적이 존재합니다.

가는 사이의 도로의 길은 존재 하나, 신호등이 없는 것은 물론, 도로 내 길이 존재하지 않아 앞서 말한 3갈래길에서 향할 경우,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불편함까지 요구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해결방안은, 인력 배치 혹은 신호등 설치입니다.

신호등 설치는, 예산과 그 사이의 거리가 애매하여 조금 힘들 수 있으나,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력배치의 경우, 예산은 위 신호등보단 적으나,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모되지만, 더욱 객관적이며 범위 넓은 판단이 가능하나, 필자는 후자를 추천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거리의 사이가 너무 애매하고, 주차가 많이 되어있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말입니다.

기간은 최소한 7~9월 이 내에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안양시에 건의합니다

1. 박달중 앞에 있는 신호등 시간조정

신호등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두 신호등이 동시에 켜지며 신호등의 시간도 짧아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2.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아지는 이유가 가지고 있기는 싫은데 버릴 곳이 없어 바닥에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면 쓰레기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길거리 환경

개똥이나 새똥, 담배꽂초 등 길거리에 많은 쓰레기가 있어 청결하지 못하고 보기 싫게 됩니다. 또한 담배꽂초의 경우 주변 식물에 불이 붙을 위험도 있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학교주변 편의시설 설치

편의점과 같이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면 학생들끼리의 이용이 편해 좋습니다.

5. 83번 버스 수 늘리기

83번 버스를 놓치게 되면 길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길거리 벽화 그리기

허전한 벽에 벽화를 그려 넣으면 벽도 채워지고 보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불법주차단속을 자치경찰 및 주민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제안이유]

대치동 일원은 학원가로서, 학원 차량 및 학부모 차량의 불법주차가 횡행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버스정류장 근처의 불법주차로 버스 승, 하차에 어려움이 많으며, 매립형 소화전 위의 불법주차로 유사시 소방 활동의 방해요인이 되는 등 주민으로서 불편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음.

[주요내용]

현재 불법주차단속은 강남구시설관리공단의 불법주차 단속차량이 수행하나, 단속 차량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전화 신고 후 한참 뒤에 도착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경찰차량이 순찰하면서 즉시 과태료를 발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범위도 확대하여 누구나 즉시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소요예산]

제도 개선만으로 별도 예산소요 없음. 오히려,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로 수입 증대 예상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안전하고 신속한 안양!

1. 재활용 쓰레기통을 안양시 모든 구역에 많이 배치하기

코로나19 방역이 해제가 되면서 밖에서 음식을 먹는 일이 많아지게 되어 쓰레기를 밖에 버리게 되기 때문에

2. 버스 정류장에 의자와 전광판 설치하기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잘 알아야하기 때문에 전광판이 필요하고, 버스를 놓치거나 배차간격이 길 때 계속 서있기 힘들기 때문에 의자를 설치해야한다

3. 외진 골목길에 CCTV 많이 설치하기

외진 골목길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고 골목길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4. 83번 버스 배차간격 많이 좁히기

83번 버스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정하면 83번 버스의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놓칠 수도 있고, 83번 버스를 의도치 않게 바로 앞에서 놓쳐 버리면 1시간 동안 기다려야 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5. 안양 쉼터 설치하기(가출한 청소년 보호하는 곳)

요즘 가출하는 청소년들과 학대를 당해서 부모님을 피해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밖에서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쉼터 같은 곳을 설치해 청소년과 아이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천안터미널 시내버스 확대 및 배차간격 줄이기

[제안이유]

1. 천안터미널은 백석대학교, 호서대학교, 상명대학교,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치대병원 등 많은 대학생들이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타고 환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밀집도가 높다.
2. 14번 버스, 700번 버스 등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는 수요가 높으나 그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버스가 꽉 차서 못타거나 버스를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야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3. 과거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4월 말 정책이 바뀌면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여 시내버스 수요가 늘어났다.
4. 백석대학교가 종점인 14번 버스는 수요 대학생이 너무 많아 항상 만원 버스이다. 버스를 놓치면 또 20분 이상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깡겨서라도 탄다.

[주요내용]

무엇을

14번 버스, 700번 버스

어떻게

- ① 14번 버스, 700번 버스의 배차간격을 줄인다.
- ② 14번 버스, 700번 버스 수를 늘린다.
- ③ 천안터미널에서 백석대학교로 가는 새로운 버스 노선 생성

언제까지

지하철 혹은 다른 교통수단이 생성되기 전까지

[소요예산]

30억

[재원조달방법]

천안시 예산에서 편성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안전한 인도를 위해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등 인도 주행 시 처벌 강화해주세요

[배경]

배달음식이 활성화되고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등이 생겨남에 따라 인도에서 보행자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요즘 인도를 걷다보면 온갖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등이 다녀서 잠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곳임에도 이들은 본인들이 비킬 생각을 안 하고 경적을 울립니다.

사고 시 운전자 100% 과실로 처리한다지만 이미 보행자는 다친 뒤고, 다친 사람만 억울하고 손해 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은 커녕, 인도에서까지 자신의 안전을 늘 걱정해야 하는 건 잘못된 상황임에도 어느 누구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용]

첫째,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등의 인도 주행 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현재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실제로 꾸준히 단속도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나 PM(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용도로를 만들어주세요.

자전거, PM이 도로로 다니기에는 위험하기에 인도로 다니게 되는데, 이들이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어주시고 이 전용도로로 다니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했으면 합니다.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처벌을 강하게 하여 모아진 범칙금으로 지방에 예산을 좀 더 배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승객이 소수인 농촌마을 시내버스를 대신해 공영택시 운영

[제안이유]

- 농촌마을의 경우 시내버스가 1일 3~5회 정도 운행되고 있으나 승객이 1~2명에 그치고 있어 차량운행비 과다 소요
- 차량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버스 한대를 놓치면 2~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불편 상존

[주요내용]

- 읍면별로 개인택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 승객이 호출하면 즉시 출동해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까지 이동시켜 주도록 함
- 택시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요금만 받고 택시비와의 차액은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

[소요예산]

- 시내버스 차량운행을 축소시킨 비용으로 택시요금 차액을 상계해도 큰 차이가 없음

[기대효과]

- 승객은 시내버스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편리
- 택시운전자는 이용자가 많아 수입이 늘어나서 좋음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동구와 수성구를 이어 줄 대중교통 증편 등 인프라 건설을 건의합니다

현재 대구에서 가깝게 붙어 있으면서 가장 왕래가 불편한 지역은 바로 동구와 수성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성구 시지에서 동구 율하지역까지 가는 방법은 자동차를 이용하면 5분 정도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버스 몇 개 노선밖에 없고 수십 분을 기다려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를 이용해도 유료도로인 범안로를 이용하거나 반야월 쪽에서 이동하는 도로 1곳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마치 아예 다른 시도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이가 두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인거리감은 물론 두 지역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특히 두 지역을 연결하는 곳에는 현재 아무런 주거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더욱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생각하기에 임대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상업지구를 계획적으로 유치한다면 놓고 있는 땅도 활용하고 두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로 더 활기차고 성장하는 대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어차피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실천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면 되고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또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오포 신현리 일대 분당 우회로 4개 건설

1. 300cc라인에서 새마을 연수원 2킬로 구간
2. 신현리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서울대 분당 병원 1킬로 구간
3. 신현리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분당동 복지센터 1킬로 구간
4. 능평리에서 죽전디지털밸리 2킬로 구간

오포읍 ~ 분당구 일대 교통체증 해소

총 소요 예산 1500억 원

8호선 연장은 현실성이나 예비 타당성이 떨어지며 완공까지 10년은 걸리고 지속적인 비용 낭비가 예상됨.

우회로 4개 건설로 교통 혼잡을 6개월 내에 해소 가능하며 적은 예산으로 해결 가능하며 태재고개의 출퇴근 혼잡도 40%감소 예상되며 8호선 연장시보다 더 효과 좋으며 즉시성임.

300cc에서 직통IC, 세종고속도로, 삼동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면 서울, 판교, 성남으로 가는 차량 수요가 분산됨.

2킬로미터 도로 건설비 300억 원으로 태재고개의 출퇴근 혼잡도를 15% 줄일 수 있음.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노은3지구 도로망 확충 요청

노은3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제8회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우리 동네 공약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① 노은3지구와 노은1지구 구간에 지족터널을 조기 건설하여 노은3지구의 교통수요와 상권 활성화에 도모하는데 큰 목적이 있음

*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 필요

② 지족산과 매봉산에 둘러 싸여있는 지형으로 치안, 산불(화재), 긴급 환자 발생 등에 취약한 지역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

* 치안 및 소방 차량 출동 시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 불가한 실정

③ 반석 ↔ 유성복합터미널 간 BRT 운영 시 교통체증이 현재보다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우회 도로망 및 둔산권 접근성 개선 필요

* 25년 이후 안산국방산업단지 입주완료에 따른 도로망 개선도 요구됨

④ 현충일, 국가 보훈행사 및 명절 등 주변도로 혼잡에 따른 우회 도로망 구축 필요

* 21년 대전현충원 내 납골당 완공 이후 현충원 후문 상시 개방 시 대비 필요

2.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가?

대전 유성구 관내에서 인구밀집도가 2번째로 높은 곳으로 추가적인 도로망 확충이 필요

3. 1.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는?

① 21년 대전시는 지족터널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아주 형식적으로 구색만 맞춰 추진한 결과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졸속으로 결론을 낸 상태임

② 현재 실정에 맞게 지족터널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검토 재추진 필요

4. 정책을 위해 드는 재원은 얼마이며, 자원 조달방안은?

대전시는 약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원 조달은 시의 재정수준을 고려 국비(70%)와 지방비(30%)를 확보하여 추진 필요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안양의 문제점 해결 정책

1. 불법주차 단속 강화

삼봉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 등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공간에 불법주차 하는 차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단속하여 학생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2. 일번가, 학교 주변 쓰레기통 설치

안양일번가와, 여러 초, 중, 고등학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길바닥에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번가와 학교 주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세요.

3. 룸형 스터디카페 개설

혼자서 공부할만한 스터디카페는 많은데 여럿이서 함께 공부할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안양여고, 안양고, 성문고 등 고등학교 주변에 조별과제 및 여럿이 공부할만한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4. 아파트 단지 주변과 길거리에 흡연실 배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흡연하는 사람 들 주변을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약자까지 모두 쉽게 간접흡연을 당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 주변과 길거리에 흡연실을 배치해 주세요.

5. 골목길에 CCTV와 밝은 가로등 설치

우리마트 주변 주택가와 신한아파트와 한신아파트 근처 주택가와 골목길에 가로등이 있지만 밝기가 낮아 매우 어둡고 CCTV 또한 없습니다. 그 근처가 어두워서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주게 됩니다. 이 불안함을 갖지 않도록 CCTV와 밝은 가로등을 설치해 주세요.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더 나은 안양시에게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에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항상 안양시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양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박달삼거리 신호등에 남은 시간을 계속 표시해 주세요. 신호등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었다가 언젠는 표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계속해서 표시해 주세요.

두 번째로 안양천에 가로등과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 해주세요. 밤에 안양천을 지날 때 가로등이 없어 다닐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서 사고 날 위험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역과 안양 일번가 주위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잔액 조회 기계를 수리 또는 교체해 주세요. 필요한 경우 버스카드의 잔액을 확인할 때가 있는데 고장나서 인식이 안 돼 잔액부족이 뜰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차량속도와 담배를 수시로 단속해 주세요. 빨리 달리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때문에 길을 다닐 때 불편합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이 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출퇴근 시간 혹은 교통체증 심화되는 시간대 시내버스 탄력적 운영

제주도는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시간대와 장소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택밀집지역은(ex구도심) 주차난도 심각한데요, 지역 특성상 출퇴근 시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여 앞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실한 노선 수요 조사 이후 행해지는 시내버스 탄력운영은 어떨까요? 매일 제주대정류장에서 15분마다 첨단과학단지까지 도는 순환버스처럼 출퇴근시간대에 집 근처, 회사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순환버스를 운영한다면 점심시간대 시내권 주차난도 완화될 수 있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출퇴근 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가끔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며 주차스트레스와 교통체증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버스회사에서 수요가 없는 노선을 운영하기 어려우니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원은 불법주차단속과 음주단속, 과속단속을 좀 더 철저히 자주하는 것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제가 느낀바 교통관련 단속이 잦지 않습니다.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등곳길 교통안전을 강화해주세요!

저는 횡단보도 신호위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생인 아이의 등곳길 교통봉사를 하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엄연히 신호등이 있고 교통봉사자가 깃발로 막았고 더구나 학교 앞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예상외로 너무나 많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아이들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이들이 건너기 전에 먼저 지나가버리려고 속도를 더 내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어요.

파란불이라고 길을 건너기 시작한 아이들이 자기 앞으로 썩하고 지나가버리는 1톤 트럭에 깜짝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이런 차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30분 정도 교통봉사를 하면 이런 차가 3~4대 지나갑니다.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만 일어나는 일인 것을 감안하면 3번의 파란불 중에 1번은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호위반이라는 것이 때와 장소를 가려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 약속이지만 학교 앞에서부터 시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등 근처에 속도위반 카메라처럼 장치를 설치하여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을 엄격히 단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뀔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가 안전하다는 아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부평구청역 인근 GM아시아태평양 본부 확장 이전 및 복합개발

[제안이유]

1. 부평엔 한국지엠 부평공장 소재로 인한 GM 기업 한국거점을 수행하고 있다.
2. 글로벌기업 지엠의 아태본부가 지엠 부평공장 및 지역 교통 중심지와의 연계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3. 부평2공장 철수설과 더불어 부지 활용에 고민이 필요함.
4. 현 부평구청역 한쪽 코너를 점유하고 있는 지엠 디자인센터 부지와 부평경찰서 및 뒷쪽 노후 빌라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철역과 연계된 복합개발 추진을 제안.
5. 서울 광진구 자양동 구의역 일대 복합개발을 모티브로 한 개발 제안
6. 유명무실한 GM아태 본부 확장을 위한 부평구 및 인천시의 협조와 노력 필요.
7. 부평 2공장 폐쇄 시 전기 자동차 또는 4차 산업 등 신동력 산업관련 연구개발시설과 연계해 부평구를 첨단 연구단지로 조성 제안.
8. 50층 규모의 아태본부 및 디자인센터를 필두로 공공시설 및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 대규모 부평의 랜드마크 설립가능
9. 건너편 굴포천과 연계된 지하 성큰 설치 등 부평대로 하부를 연계해 녹지축 산업축 구도심 부평구청등 대규모 연계를 통한 부평구청역을 핵심거점으로 활용가능

[소요예산]

1조 2천억 규모 예상

[자원조달방안]

- 역세권 용적률 상향 및 부지 용도 변경(현 준공업지역)을 통한 민간 분양성 향상
- 지엠 디자인센터 건물 자재 재활용을 통한 자재비 절감 방안 도출 및 친환경성 도모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선학 별빛 도서관 공원 내 그리고 선학경기장 내 주차타워 건설해주세요

선학동 주민입니다.

선학별빛도서관이 있는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골목길은 평상시에 오고가는 차량 간의 시비와 싸움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여러 번 민원을 올렸음에도 임시방편 일뿐 지자체에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전혀 내놓지도 해소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거의 4년째 그로인한 피해는 인근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골목길자체가 워낙 좁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양쪽에 주차해 놓은 차들로 인해 한쪽 방향으로 오는 차들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양쪽으로 차 행렬이 길 경우는 다시 물러 줄 수가 없으므로 주민간의 시비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고성과 쌍욕이 오가면 근처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저 공포의 순간입니다.

도대체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교도소 수감자에게도 안할법한 고문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지방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뽑아줘도 어차피 일하지 않을 텐데 뭘 믿고 뽑아줘야 합니까? 심지어 저희 집 앞은 소화전이 있어서 빨간 줄로 그어져있지만 마구잡이 주차가 되어져있고 이걸 신고해도 지자체는 그 어떠한 제재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빨간 줄 그어져있는 소화전 앞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 앞에 주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할 뿐입니다. 공무원 소극행정에 통행 장애에 대한 주민들 분쟁유발에 또 그에 대한 민원을 받고도 전혀 해결하지 않는 모습까지!

연수구는 그야말로 0점짜리 행정입니다!

따라서 선학 별빛도서관과 그 공원일대를 감싸고 있는 골목의 주요 도로에 노란색 선을 그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주시고 현재 공원 확장공사 하는 걸로 아는데 확장공사 하시는 김에 주차타워를 크게 지어서 주민들의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또 선학경기장 내에도 크게 지어서 선학동 주민들의 주차문제 고충을 해결해주시시오!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되시는 분은 임기 말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주시시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놀이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례 14, 15단지에 사는 6학년 어린이들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 후보자분들께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14, 15단지에는 놀이터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놀이터가 안전하지 않아서 여러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14단지 놀이터에는 올라가는 음표 부분의 제일 높은 곳이 많이 흔들리고 운동기구 자전거 페달이 빠져있습니다. 15단지도 원숭이 철봉과 미끄럼틀이 많이 흔들리며 나사가 느슨합니다. 이런 위험한 놀이터를 고쳐주시고 놀이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첫째, 놀이터가 안전하지 않으면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서울 25개구 아파트 총 300채 이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151곳에서 149명의 어린이 반 이상이 다쳤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신나게 노는 공간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안전 점검을 자주 해주세요. 특히 위례 14, 15단지 놀이터 시설을 점검하고 고쳐주세요.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도로이지만 아직 아스팔트 비포장 되어있는 많은 마을길을 포장해주세요

[제안이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3-3인근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이곳에 산지 25년이 되었지만 다른 곳에는 도로포장이 되어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거주하는 부근에만 아스팔트 포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했지만 그 때 또한 비포장 도로인 곳은 안 해주고 도로가 깔려있는 곳을 우선하여 덧깔았습니다.

이처럼 저와 같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바 마을소외지역에도 주민이나 인근공장의 서명을 받고 도로를 깔아주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내용]

마을 소외지역으로 보이는 곳으로 건축허가를 내기위해 도로부지를 내놓은 곳과 지적상도로에 아직 아스팔트 등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곳을 인근 주민과 공장 등의 서명을 받아 포장해주는 사업을 매해 시행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요예산]

마을마다 소외지역의 구간과 길이가 다르므로 잘 모르겠으나 통상 2천 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하는 게 타당하다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인근 도로포장업체에 2~3비교견적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원조달방안]

도와 시의 도로정비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공사

요즘 공사현장을 보면 하루~이틀이 지나도 안 되는데 그러면 차들이 계속 밀리고 먼지도 좀 나는 것 같아 사고까지 날수 있어 오래된 장비로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기에 최신장비로 하면 (아마도) 공사가 더 빨리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인력을 좀 더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최소 2022년 10월 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비용은 적어도 많이 들 테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을 빨리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인력을 투자 해야만 교통문제도 줄고 먼지가 나는 것도 줄고 그렇게 생각 하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풀리면 좋겠다. (만약에 공사하시는 분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기계를 좀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좀 부담이 갈수 있어 돈을 좀 많이 쓰더라도 부담을 갖더라도 빨리 공사를 하여 해결됐으면 좋겠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버스 노선 신설이 절실합니다 (영통3동 - 하동 노선)

[주요내용]

영통 3동에서 하동으로 직통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신설해야 합니다.

[제안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인근에 거주하는 영통구민입니다.

같은 영통구이지만 영통3동에서 하동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전무합니다.

복잡한 환승을 거쳐야 하며, 심지어 그 버스들도 배차 간격이 긴 편입니다.

영통 3동에는 영통역과 경희대 국제 캠퍼스가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높습니다.

게다가 하동에는 광고 호수공원과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이 있어서 방문객이 많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로 인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같은 영통구 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영통3동 - 하동 직통 버스 노선 신설을 소망합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안양시에 대한 문제

1. 안양천 운동시설 개선

안양천에 걷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이 있으면 다양한 운동을 하고 어르신분들도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울렛 및 상가건설

일번가나 버스를 타고 나가야지만 놀 수 있는 상가라던지 식당 등이 있어 가까운 거리에도 갈 수 있는 상가 건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안양천 농구장 펜스 설치

안양천에서 농구를 하다보면 공이 튀겨 날아가는데 잘못하면 가지고 나오기 어려운 곳에 빠지거나 아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펜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안양시 가로등 수리 및 개수증가

(안양 월드 골목 및 박달초 후문) 모든 곳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어두운 곳은 가로등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거나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나서 안 나와서 건너가는 신호가 애매해집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지하철 복합열차운행 5호선 방화~강동(천호)구간, 1호선 청량리~병점구간, 청량리~천안구간

[제안이유]

1. 복합열차 운행구간 외의 지역 운행 시격 단축(시내 전동차 평균 시격 14분 이상)
2. 복합열차 운행구간의 열차 운행 감소

[제안내용]

5호선 방화 ~ 강동(천호)구간

5호선 8량을 방화 ~ 강동(천호)에 하남행4 + 마천행4량으로, 방화행 마천발4 + 하남발4량으로 방화 ~ 강동(천호)구간에 복합열차를 운행하고 강동(천호) ~ 마천(하남검단산)에서는 분리 운행하여 시격을 1/2로 줄인다. 강동, 천호에 운전사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운전사 휴식, 교대 근무로 인한 대기실을 운영한다.(현재도 운영하므로 장소만 이동 설치할 것을 요망)

방화 ~ 강동(천호)까지는 복합열차로 운행하다가 강동에서 복합열차 후반의 마천행열차의 운전사 사무실에서 교대해 온 운전사가 운전석에서 자동제어장치나 수동으로 복합열차 분리를 수행하여 운행한다.(이미 있는 대기실을 강동에 마천행 운전대기실로함) 천호에서 하남검단산발 방화행 열차의 운전사가 운전석에서 자동제어장치나 수동으로 미리 도착한 마천발 방화행 열차 후미에 운행해온 열차를 접합하여 복합열차를 만들고 운전사 대기실에서 온 운전사와 교대한다.(이미 있는 운전사 대기실을 천호에 일부 이동하여 하남 운전사 대기실로 한다)

1호선 청량리 ~ 병점구간

1호선 서동탄행1 + 천안행9량으로, 청량리행천안발9 + 서동탄발1량으로 청량리 ~ 병점구간에 복합열차를 운행하고 서동탄(천안) ~ 병점에서는 분리 운행하여 시격을 1/2로 줄임

1호선 청량리 ~ 천안구간(2024년청주공항개통후)

1호선 청주공항행5 + 신창행5량으로, 청량리행신창발5 + 청주공항발5량으로 청량리 ~ 천안구간에 복합열차를 운행해 천안 ~ 신창(청주공항)에서는 분리운행하여 시격 1/2줄임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운전실 구비 전동차 구비, 정부(지자체)

(참고) KTX산천 서울 ~ 동대구, 서울 ~ 익산 복합 운행, 9호선 급완행 운행, 노량진 ~ 신길 전차 단선왕복운행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희망공약제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사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의 정책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책은, 공원을 만들어주세요. 공원이 멀리 있어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일반 거리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충돌이 생겨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거리에 쓰레기통을 놔주세요.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버릴 곳이 없어 불편합니다.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를 버리기 편리해지고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책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장애인 보도블럭 설치 및 교체

저는 장애인 보도블럭이 설치되거나 닳은 곳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장애인 보도블럭이 사고를 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보도블럭이 연결이 되지 않거나, 횡단보도 도보 방향을 알려주는 선형블록 방향은 차도 방향으로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보도블럭을 제대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닳아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보도블럭은 교체해야 합니다. 곳곳에 닳아서 부서지는 보도블럭도 많습니다. 그런 보도블럭은 오히려 장애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보도블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각 장애인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시각장애인 보도블럭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위험천만한 놀이 민식이법 놀이 하는 아이들 대신 그 부모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위험천만한 놀이 민식이법 놀이 하는 아이들 대신 그 부모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계속 증가하는 사고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행된 민식이 법으로 인해 놀이가 생겨난 거 많이 아실겁니다. 학교 앞에서 차를 따라가 만지면 돈을 준대 하면서 좋아하는 아이들. 그 민식이법 때문에 아이를 다치게 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수법 왜 개들한테는 아무 처벌이 없나요? 아이들 처벌 못하면 그 부모라도 처벌해야 정상 아닌가요.

엄한 운전자들만 조지지 말고 아이들에게도 처벌이 있어야죠. 개들한테는 그저 놀이고 돈벌이 그 수단입니다. 이럴 때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할게 아니라 또한 아이들의 안전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 아이들로 인해 운전자들은 그저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지 어린이 보호 구역 있으면 그쪽으로 안 지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괜히 아이들 건들면 징역형이고 인생조지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라 생각이 드나요?

아이들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차보다 빠른 것도 아니고 금방 지나칠 수 있다고 해서 신나게 달리는 차보단 빠르진 않습니다. 하루 빨리 민식이법을 이용해먹는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의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아이들과 노인분들을 포함 진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 지난 9월 진주로 이사 왔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도 있었고 여러 사정상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힘든 점들이 많다보니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검색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일자리 자체도 진주 내에서는 일반 서비스업, 공기업, 외에는 공업단지 내의 단순노무의 일이 많았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버티기 어려워 보였고 소위 외국인근로자들이 [버티듯] 근근히 일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체험형 일자리에 참여해 하루 4시간씩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이라 시급은 최저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곳 진주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사신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진주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엔 일자리도 많지 않고 혁신도시쪽에 공기업, 기관들이 생기면서 조금 있을 뿐이지 젊은 사람들은 공부해서 다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나간다고 하더군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나 찬성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퍼주기보다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1. 다양한 일자리, 배움의 기회제공.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만 37세인데 청년층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다고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에도 속하지 않아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기술을 배워 취직을 하고자 하여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제가 찾던 강의는 진주에 없었습니다. 제가 찾던 강의는 3D프린터 활용을 위한 라이노 프로그램 기술습득 이었습니다.

2. 취약지역 (농촌, 외곽지역) 에 CCTV설치 의무화.

모두가 알다시피 인적이 드물거나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어지는 지역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농촌에는 멧돼지도 많이 내려와 위협적이라 합니다.

3. 서울시의 따릉이와 같은 자전거대여시스템구축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확보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계양구도 따릉이처럼 공유 자전거 설치해주세요

계양구 주민들의 일상에 편리함을 주는 공유 자전거를 설치해주세요.

멀지 않은 거리를 가는데 대중교통을 기다리고 갈아타는 불편함이 큼니다.

일상생활에서 볼일을 보러 갈 때 걸어가면 50분, 대중교통 타면 30분이 걸리는 거리가 자전거 타면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서울처럼 공유 자전거를 설치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이 공약으로 선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수구에도 타조 공유자전거가 있어서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구요.

계양구에도 많은 시민들이 공유 자전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이 후보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계양의 변화, 미래로 나아가는 인천, 시민의 행복, 할일을 볼 줄 아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거여 2동 유마트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거여 2동에 사는 6학년 어린이입니다.

요즘 유마트 앞에 신호등이 없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면 교통사고에 위험이 높고 사고율이 높아집니다. 유마트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

첫째, 신호등이 없으면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유마트 앞에서 길을 건너야 하는데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있어 무단횡단을 합니다. 어른들은 힘들어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귀찮아서 무단횡단을 합니다.

둘째, 운전하는 사람들은 억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민식이법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운전자들이 조심히 운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해서 끼어들어서 사고를 당해도 운전자들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셋째, 무단횡단이 사고율이 제일 높습니다.

요즘 교통사고 원인이 무단횡단이 48.4%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무단횡단 이유는 급한 용무가 있음이 33%, 신호등이 멀어서가 26.5%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많이 하는 생각, 사고가 안 날거 같아서가 26.5%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린이들은 어른들이나 자기 친구들이 무단횡단을 해 많은 어린이들이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여 2동 유마트 앞은 횡단보도가 좀 멀리 있어서 무단횡단의 위험이 높습니다. 어른신과 아이들도 편하게 갈수 있게 거여 2동 유마트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파손된 인도, 차도 복원

[제안이유]

인도 혹은 차도가 파손된 상태로 고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걸려 넘어지거나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는 등 지역구 시민들에게 여러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내용]

안전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되도록 빨리 복원했으면 한다.

[소요예산]

인건비, 시설공사비용 등 이러한 비용이 소요될 듯하다.

[타 지역 또는 다른 나라의 사례]

지난 2020년 전북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파손된 도로시설에 대한 신고 접수 198건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보수원 10여명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복원을 하였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육아 수당 현실화에 대한 희망공약제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작게나마 저의 희망 공약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육아수당 현실화에 대한 공약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육아수당은 정말 부부가 동시에 공무원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절대 쓸 수 없게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직장인들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일을 그만 두게 되거나 어렵게 육아 휴직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복직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제도라는 것도 엄마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혜택을 받지 못 하는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분들 중 그런 여유가 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 육아휴직 수당은 그야 말로 생색내기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있든 없든 아이를 가지게 되면 기한을 정해 놓은 지역화폐로 매달 15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예산이 한해 조 단위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신생아 수로 나누면 한 명당 약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과연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치매 예방과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제안이유]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영혼까지 병드는 무섭고 두려운 질병입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적 불행이고 사회적 손실을 유발시키므로, 보다 관심을 갖고 체계적 케어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6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치매 선제적 검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진행해주세요.

고위험군, 중등고, 저위험군, 일반 관리군 등 체계화되고 정밀화된 시스템으로 국가에게 세심하게 관리해주세요. 보건복지부 독립된 부서에서 별도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치매예방과 치료를 국가적 중대 아젠다로 지정하고, 선제적 진단과 치료, 관리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언제까지]

2022년 5월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1년 안에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소요예산]

각 지자체 별로, 치매환자 파악 및 선별검사, 환자관리 예산,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추가적인 세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조달방안]

각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특정시간에 버스 확충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19가 심각한 상황 속 버스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고,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 밀치는 몸싸움이 일어나 부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한 배차간격이 너무 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그리고 환승하고자 할 때,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환승시간을 놓쳐 교통비에 불이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자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인 아침 6시부터 9시,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41, 42, 43, 9, 82번 각 2대씩의 버스 확충을 제안합니다. 41, 42, 43, 9, 82번 버스의 평균 배차 간격이 대략 50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이기 때문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6억이지만 저희가 정부에 직접 청원을 하여 교통관련지원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버스기업에서도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된 송도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사회 질서 유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의 편리성이 보장되는 등 살기 좋은 송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정읍 시내버스 막차 시간 연장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느꼈을 법한 일상적 불편함에 대해 공약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여고생이기에 학교에서 야간 보충 수업도 듣고 가끔 친구들과 놀 때는 저녁까지 놀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막차시간이 짧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정읍 시민들이 많이 타는 277 버스의 경우 수성동 제일 아파트 - 7시 50분, 상동 우미 아파트 - 8시 28분이며, 232 버스의 경우에도 정읍여고 기준 8시 41분이 막차 시간대입니다. 즉 정읍에는 기점을 기준으로 막차가 9시 이후대인 버스가 없습니다. 주변 지역인 남원(인구 7만명 대)의 경우 시내버스 중 600번 버스의 막차 시간이 9시 10분이며 완주(인구 9만명 대)의 경우 막차 시간이 9시 이후는 물론이고 10시대인 버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지역 규모가 비슷한 지역들의 막차 시간은 정읍보다 길다는 걸 입증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정읍의 정치인 분들이 정읍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을 연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기점을 중심으로 9시 30분 이후까지 늘린다면 인프라 측면에서 정읍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발전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젊은 농업인으로 활력넘치는 고장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현황]

안성의 경우,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농업인구 비중이 높고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그 어느 곳보다 인구 피라미드 불균형이 심한 곳입니다.

[제안사항]

청년 농업인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젊은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귀농을 희망하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 귀농 준비 농업체험 시설을 설치하면서 직접 영농도 경험해보고 농식품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소통, 협력의 장으로써 뜻있는 젊은이들의 많은 참관과 함께 취-창업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로, 농업 또한 다른 분야와 유기적으로 그리고 융합해서 더욱 더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공학, 수리학, 환경학 등 다양한 학문의 영역과 융합된 횡단적인 첨단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나 요즘과 같은 4차 산업 혁명시대 융합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잘 강조되기에 농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발전도 함께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농업이 다른 산업과의 융합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력R&D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이미 모든 대선 후보들이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약속했기에 중앙정부의 예산 배당도 가능하고, 경기도에서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제도도 신규 도입되었기에 소요 예산은 이런 중앙정부와 경기도 예산으로 배당받고, 그 외 추가 필요한 부분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농촌마을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이런 지역개발 및 농촌정착 안정자금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살고 싶은 농촌, 일하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공약들을 잘 이행함으로써 안성시가 청년농업인 육성의 모범 지자체로 주목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밤길 콜 서비스 시행

밤길 콜 서비스란 늦은 밤 홀로 길을 가는 여성이나 어린 학생들이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 밤이 아니더라도 외지거나 한적하여 혼자 걷기에 꺼려지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전화 통화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갈 때 어두운 길을 가다가 좋지 못한 일을 겪을까 걱정하며 길을 걷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가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는 우편을 받거나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때 그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중원구의 주택가에는 좁은 골목이 많은데 이런 점에서 골목길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밤길 콜 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발생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함께 통화를 하고 있던 통화원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 발생률을 보았을 때, 이러한 공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마음 놓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다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금 확대

네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여섯 식구가 사람답게 살려면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아둔 재산이나 물려받은 재산마저 없어 외벌이로는 숨만 쉬고 살아도 정말 힘이 듭니다.

직장의 출, 퇴근 시간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하교 시간은 다르기에 맞벌이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건 부모나 아이 돌봄 서비스 없인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멀리 거주하거나 늙으셔서 꾸준히 아이를 봐주기도 무리입니다.

자연스레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나 등급 30% 부담, 초등학생 추가요금 2배)

(시급만원이상 *30%부담) *최소단위 2시간부터 *아이4명 *평일20일 + 초등학생추가요금
평일 2시간씩 (17시~19시) 아이들 하교, 하원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200만원 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사람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되네요.
네 아이에게 가난의 대물림이 아닌 밝은 미래를 안겨주고 싶습니다.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비율을 낮춰주십시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다연령층을 위한 쉼터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동대문구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없고, 일부 나이대에게만 적용되는 시설밖에 없습니다. 이걸 일부를 제외한 다른 나이대에게는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연령층 쉼터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어린이·청소년 놀이시설, 도서관, 상담시설, 노인시설 등...) 다연령층 쉼터가 생기면 여러 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다연령층 쉼터가 생기면 노인층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층들에게는 같이 놀 곳이 우리 구에는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연령층 쉼터를 만들면 같은 동네에 있으니 편하게 노인분들이 함께 모여서 놀거나 이야기를 나누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연령층 쉼터가 생기면 놀 곳이 없는 청소년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나 동네에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재미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가끔 제가 놀러 나갈 때는 항상 근처에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놀이터밖에 없어서 나이대에 맞는 재미있는 곳에 가려면 멀리 지하철을 타고 가는 고생을 해야 합니다. 쉼터에서 인생네컷, 만화카페같은 시설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연령층 쉼터가 생기면 그 외에도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연령층을 위한 쉼터는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꼭 생겨야 합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자영업자 사각지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시다

저는 코로나 전에는 저축도 하며 살 정도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정말 코로나 이후로는 월 백만 원을 가져오기 힘들 정도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부 둘 다 한곳에 매달리는 실정이라 매달 빚만 쓰는 상황이 2년 이상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소매업이라 영업제한 등의 따른 조치가 전혀 없는 업종이라 정부 지원에서 빚겨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제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요예산과 재원조달은 물론 추경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시에서 매년 남아도는 예산을 쓰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시 까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한 시도에는 오히려 다음해에 인센티브를 줘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안을 한 후 재원을 마련하여 한 달 200만 원씩 6개월 이렇게 장기적인 도움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부산

[제안이유]

- 세계박람회는 인류의 과학적, 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입니다.
- 약 200개국, 3,218만여 명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 경제적 파급 효과 어마어마합니다. 생산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조원, 일자리 창출 50만 명
- 부산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

- 2030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부산시 주도하, 민관협력 TF팀 구성
- 마이스산업 확대 및 산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홍보, 지원, 발전 계획 수립
- 부산시민의 2030엑스 관심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대사 선발
- 정부 및 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다국적 국가 간의 외교적 활동 강화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장애인 집 지원, 장애등급 지원.

[제안이유]

내에서 65세 되면 매입임대로 그 집을 그냥 살 수 있게 해 주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여 장애인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들은 걸어 다닐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나 심한 장애중 걸어 다니지 못하고 휠체어에 옮기기가 힘든 장애인들에게는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임대나 매입임대가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 자치제나 도지사분들께 이 공약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생각 못 하였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장애인에게 이사를 가라고하면 옮기는 비용도 어마하지만 노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름을 더위로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과 심한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심한장애인에게는 지원이 부족하고 여름을 편안하게 지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1가지 더 있습니다.

요양등급으로는 침대지원이 가능하는데 장애등급으로 장애인 침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한장애인중 집에서 움직이지 못 하는 휠체어를 타기 힘든 심한 장애인도 있는데 등급중 요양등급으로는 침대 대여를 해 주시는데 왜 요양등급이 안 되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지원 잘 해 주겠다 해놓고 장애인 일자리나 활동보조로만 지원을 해주는데 장애인들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꼭 공약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도 나라의 한 시민입니다.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구도심 재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구도심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주택공급책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기존도심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주변을 개발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시가지와 지구에 구도심의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형마트와 극장 등 편의시설이 신시가지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행정과 개성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점성장전략에서 중심시 개발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편성과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를 예로 들면 전주시의 시정방침 중 품격있는 문화도시 는 관광과 숙박을 통한 관광소득과 관광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주시민으로서 바라본 관광지로서의 전주는 한옥마을이 대표적인데 이마저도 전주시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것이 아닌 먹거리위주의 상업적 특수만을 노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기적 특수가 아닌 장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전주하면 떠오를 수 있는 문화도시라는 개성적인 면에 착안한 구도심의 재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시각장애아동들을 위한 놀이교구재 보급방안!

[제안배경]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시각장애아동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촉각도서와 놀이교구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됨. 또한 일반교구재에 비해 3~4배에 달하는 제작비용과 제작시간으로 점자촉각도서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꽤 힘든 실정. 그래서 시각장애아동들을 위한 놀이교구재와 점자촉각도서 제작에 주목함.

[주요내용]

일단 시와 구에서 점자촉각도서, 교구재키트를 개발·제작하는 가까운 지역의 사회적 기업 또는 시각장애인복지기관에 주문을 의뢰. 그리고 시각장애 아동들의 학습이해도 향상과 놀이유도를 위한 지도교사용을 먼저 제작. 매달100개 제작을 목표로 1년에 1,200여개를 생산하여 완성된 촉각도서는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에 전달하거나 각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발송, 전국 시각장애아동 지도교사에게 무상배부하자는 것. 예를 들어 부직포에 천을 덧붙여 숫자와 점자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점자놀이 교구재로 '숫자놀이책'이 있음. 구슬을 실에 꿰어 숫자를 손으로 만지고 세볼 수 있는데 시각장애 아동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숫자를 익히며 점자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놀이와 연계해 만든 촉각도서. 단, 아이들 손을 다치지 않게 점자촉각도서의 모든 제품을 원단으로 제작함.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숫자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으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어릴 때부터 손의 작은 근육들을 발달 시켜줘야 나중에 점자를 배울 때도 큰 도움.

두 번째, 점자촉각도서 제작품을 무상 배포도 하지만 촉각도서 도안과 제작방법들을 홈페이지에 올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게 제작하게 공유. 모든 지역의 특수교사, 복지사, 장학사들이 이 촉각도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도록 직접 점자촉각도서를 제작하거나 제작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점자놀이교재의 사용방법과 제작방법, 재질 및 디자인도안 등을 시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는 것.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아동들의 촉각도서 및 놀이학습권과 문화향유권을 보장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안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재료 공급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푸드를 위주로 발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요? 국가에서 소상공인이 로컬 푸드를 구입할 때 추가로 할인을 해준다 또는 사업장에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등의 방안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고 값이 싸고 좋은 품질의 재료를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음식을 제조한다고 가게에 명시해두면 소비자들은 재료의 품질을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음식점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농업 종사자들의 실적을 막을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업장 등록을 한 소상공인에게 특정한 카드를 지급해서 이 카드에 주기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이 카드로 로컬 푸드 매장에서 결제 시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남녀 평등법

[제안이유]

남녀가 평등하게 급여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

[주요내용]

남녀가 평등하게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모든 직장에서 여성과 남성을 1:1 매칭으로 채용하게 하는 법률

- 여성이 퇴직 시에는 여성의 T.O.를 충당하기 전까지 남성을 뽑을 수 없음
- 해당여성의 공백은 여성에게 업무공백을 할당
(남녀 평등으로 남성에게 업무공백을 전가할 수 없음)
- 마찬가지로 남성이 퇴직 시 남성의 T.O.를 충당해야 여성의 채용가능
- 각 급여를 평등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야근 등 정확한 업무에 대한 지급

[소요예산]

알 수 없음

[자원조달방법]

여성과 남성의 급여를 평등하게 맞추기 위한 세금을 여성은 여성에게 부과 남성은 남성에게 부과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전주시 전주천 주변의 산책로 확대 및 보완

[제안이유]

전주천을 따라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으나 길이 좁고 1차선이라서 자전거 타는 사람, 애완견 산책시키는 사람, 런닝하는 사람, 걷는 사람, 아이, 유모차 등 충돌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교각 밑 언더패스 차선의 낮고 부실한 가드레일은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에게 불시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전주 시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써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 교각 아래 언더패스 차로의 부실한 가드레일 대신 높이 2m의 방음벽 교체
- 1차선의 산책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가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분리 및 확대
- 산책로 바로 옆에 가로수를 심어 그늘 조성 및 소규모 공원 신설

[소요예산]

400억

[재원조달방법]

지역 기업들의 후원과 전주시의 예산 마련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모금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안양시 건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양시 문제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건의할 사항은 박달시장 내에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연이 음식에 들어가 음식위생을 지킬 수 없고 교통이 불편하며, 자칫하면 사고가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양천 통행로에 있는 개똥을 치워주시는 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양천 통행을 이동할 때 개똥이 많아서 보기 불편하고 이동하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토바이 소리 튜닝을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주 놀라게 됩니다.

네 번째, 불법주차를 단속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통행이 불편할 때가 있고 주차할 공간이 점점 사라지며 주차를 할 때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주차를 하기 불편합니다.

다섯 번째, 건의사항은 속도 카메라를 박달중학교에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등학교 할 때 차들이 너무 빠르게 달려서 선생님들도 깔끄러워 하고 있고, 학생들이 자칫하면 사고를 당한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용화장실 위생을 강화해 주셨음 합니다. 안양천에 있는 공용화장실만 해도 지린내, 담배냄새가 나고 변기와 세숫대야도 더러워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마지막은 강아지와 산책할 때, 강아지 입마개나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안양천 통행로를 지나갈 때만 해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강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달려들어서 하마터면 강아지에게 물릴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문제해결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안이유]

1. 현재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것마저 포기하면 살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나 비용적인 문제를 지금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받아도 공평하게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 까지만 도와주시면 회복이 되면 언제든지 어렵게 견뎌낸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잘 이겨 내실 거고 일어나실 겁니다.

2.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학력무관, 경력무관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에 학력이나 경력을 보게 돼 원하는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해도 열심히 배운다면 다 해낼 수 있는데도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살기 좋은 안양시, 우리 같이 만들어요!

1. 박달중 앞 횡단보도 시간을 늘려주세요

학생들이 등, 하교 하면서 신호등 시간이 너무 짧아서 위험하거나 뛰어야하는 경우가 많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초, 중, 고 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때문에 학생들도 위험하고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많아서 부탁드립니다.

3. 안양천에 화장실, 먹거리 가게, 자판기 등을 설치해주세요

안양천에 운동이나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멀리 있고 편의점도 근처에 없어 편의점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물, 음료를 못 챙겨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판기를 설치해주세요.

4. 안양천에 계단이나 경사로에 난간을 설치해주세요

어린이들이나 어른신분들은 계단이나 경사로가 울퉁불퉁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해주세요.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통 설치공약

아파트에 쓰레기통이 단지에 1개가 있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단지마다 쓰레기통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통이 너무 꽉 찹니다.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꽉 차면 집에 가서 버려야하는데 쓰레기통 바닥에 버립니다. 또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넣어서 꽉 차고 쓰레기통 바닥에 버려 아파트단지가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지나가면 불쾌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 단지마다 쓰레기통을 만들면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길가다가 보면 사람들에 주위를 둘러보더니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통에 더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아.. 저기 쓰레기통이 생겼네 하면서 길가에 쓰레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면 바닥에 버리거나 집에 가져갑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이 더 많이 생기면 쓰레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세 번째, 쓰레기처리를 할 때 길에서 줍지 않아도 되고 쓰레기통만 비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길에 쓰레기가 줍지 않고 쓰레기통만 버리면 안 귀찮고 깨끗한 아파트 단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통을 2개 정도 생기면 장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에 최소한 쓰레기통을 2개정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복지대책 마련

[제안이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감 등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내의 지원서비스와 정책부족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고있는 상황이다.

발달장애인 자녀가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다시는 장애인 가정에서 가슴 아픈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누군가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종합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한 인간으로써 부모가 없는 세상, 형제·자매가 없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

[소요예산]

300억 원

[자원조달방안]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원으로 시행
- 초과세수나 새로운 세금, 국채 활용 방안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거나 해당 기간 이자 납부를 중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안이유]

결혼 지연 및 출생 감소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임.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중 집값이 큰 요인이며, 대부분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음.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내다가 임신을 하여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수당만으로는 생활비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해당 가구의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중단해 주는 제도가 필요함
-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은 재원이 마련되면 가능할 것이고,
- 전세자금대출이자를 휴직기간만큼 중단할 경우
금융사와 중앙부처 협약이 체결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최대 3년)

[기대효과]

육아휴직 장려 및 후속 출산 기대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복대국민체육센터 대농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공원, 심각한 주차난, 문화관 활성화) 해주세요

현재 복대동 국민체육센터 착공 중에 있습니다.

대농공원과 연계하여 통일성 있는 공원과 부지 조성을 해주세요.

특히, 복대동 인구수가 많은 관계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건립 시 지하주차장 최소 3층까지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센터부지 내 야외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흥덕보건소(구흥덕구청) 주차장과, 대농공원 주차장은 오전에는 주변 상가 및 회사 직원들의 주차로 가득 차 있고 오후에는 지월상가거리 이용객들의 주차로 하루 종일 만석입니다.

향후 국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이 전혀 활용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복대동 인구대비 국민체육센터 예상 이용객을 산정하여 주차장을 따로 구비해 두셔야합니다. 최소 지하3층까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집 앞이라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대농공원에 위치한 문화관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농공원 부지 내에 문화관을 건립 하였습니다. 당시 1층 일부는 커피숍으로 인허가가 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7년간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고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공실로 사용 중입니다. 현재 공원이용객들이 많으니 기존 인허가 사항대로 카페 등 활용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워킹맘에게 재교육 기회를 확대해주세요

전업맘 워킹맘 분열을 조장하자는 의미 아닙니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교육기회나 복리혜택은 많은데 현 직장인에 대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확대해주시기 제안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정년까지 다닐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고 교육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면 주로 전업주부 대상이라 낮 시간에 집중되어 있어 엄두도 안 납니다.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고 양육비 시터 비용 등 세금공제도 안 되는 돈들이 줄줄 나가서 경제적으로 운택한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만둬라 하겠지만 이 고비만 지나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오늘도 하루하루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등 재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일단 거주지 중심으로 공약을 제안하며 시간 확대, 교육기회 다양화 등 보편의 가치로 누릴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소상공인(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제안

무인 판매점은 절도의 위험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무인 판매점이 늘어난 만큼 무인 판매점에 더욱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업체와 협업하여 점포 운영의 효율과 안전을 높여 주시는 방향으로 보안 강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파손 행위와 절도 행위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점포 상인들도, 이용하는 손님들도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며 운영,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장 큰 방법은 처벌 강화라고 생각하며 절도 행위와 파손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마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형가 근처에서 운영하는 점포를 보호하는 쪽으로 유형가 근처에 가로등을 더욱 많이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포 주인은 11시만 되면 문을 닫는다. 근처에 유형가가 있어 취객이 언제 난동을 부릴지 모른다. 라며 말했습니다. 유형가 근처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둡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처 점포를 보호함과 동시에 치안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로등 추가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유형가를 이용하는 시간대에 근처에 경찰들에게 순찰의 의무를 내릴 것을 제안합니다. 무인 판매점은 말 그대로 사람이 손님을 응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시에 바로 대처할 수 없지만, 근처에 경찰이 순찰할 경우 문제가 생길 시에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유형가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재발 방지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cctv 추가 설치, 가로등 추가 배치, 경찰관 순찰 등을 제안합니다.

무인가게가 보다 더 나은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한 정책 대안 첫 번째는 도난법 강화 그리고 알코올 섭취 후 가게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를 대비하여 업무방해법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센 형벌을 받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업무방해죄에 이르지 못해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더 넓혀 가게 운영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은 심신미약 상태일 경우 더 약한 형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합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재정, 경제, 복지] 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

[제안이유]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불평등 해소와 사회경제 전환
- 전 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전국화

[주요내용]

- 청년기본소득
 - 청년기본소득조례 제정으로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월 10만 원 기본소득 지급
 - 소득과 자산,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
- 노인기본소득
 - 만 65세 이상 노인 연령대에 월 10만 원 기본소득 지급
 - 소득과 자산,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
 -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의 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이행기간]

2022년 준비 기간 거쳐 2023년부터 시행

[재원조달방안]

- 청년기본소득 · 노인기본소득 · 농어민수당
 - 광역-기초 지자체가 예산의 절반씩 부담
 - 지자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70%를 임기 내 예산으로 배분 사용
 -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의 상당액을 예산에서 활용
 -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총예산액 대비 5~10% 내외 지출구조조정 등
- 아동 · 청소년기본소득
 - 국고보조사업(중앙정부-지자체 부담) 편성에 의한
현행 재정 분담을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국가복지사업으로 전환
 - 전국 지자체의 협력 네트워크 통해 공론화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양재역 3,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층간소음법 시행

양재역 3, 4번 출구 계단이 많이 가파르고 중간쯤 올라가면 40대인 저로서는 다리에 힘이 들고 숨이 가쁠 정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노약자나 어르신분들이 타시기에도 비좁고 눈치가 보이네요. 3, 4번 출구가 거의 붙어있으니 한 쪽 출구에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할거 같아 제안드립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이사했구요. 건설사가 시공할 때부터 소음방지 기준을 만들어 방음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아파트 생활할 때 일정 기준의 소음을 내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탑층인데 엘리베이터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소음기준도 강화해서 시공 시부터 규정 지키게 하고 시공 후에도 관리하여 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사람이 편안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재활용 정책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어주세요

최근 페트병 등 플라스틱 사용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개인들은 재활용 정책에 동의하고 최대한 협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재활용법과 애써 분류한 투병 페트병이 제대로 재활용 되지 않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비닐류에 대한 재활용은 더욱 어려운데 개인에게 분류하고 지킬 것을 먼저 강조하기보다는 애초에 생산을 줄여 대체하거나 생산할 때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통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 시에(특히 플라스틱과 비닐류) 소재를 동일한 것으로 통일하고, 재활용 방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꾸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설비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기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겠지만 이후에 안정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선거철에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엎지 말고 그 예산으로 재활용 사업에 투자해주세요.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시민과 유기견에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는 유기견 보호. 구제 제도를 실천

[배경 및 필요성]

생활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여가시간이 많이 생기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버려진 개들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게 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기 앞서 책임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기에 시민과 유기견에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는 유기견 보호. 구제 제도를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의 피해

- 배가 고파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들
- 어린아이들을 물어서 상처를 날 수 있음
- 갑자기 나타나는 유기견으로 교통사고 발생

유기견의 피해

- 책임감 없는 주인에게 무참히 버려짐
- 30일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기본방향]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 양성! / 유기견에 대한 선입견을 새롭게! / 입양을 도와 생명을 구함!
유기견의 숫자를 줄여 깔끔한 환경 제공! / 유기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미연의 방지!

[추진방향]

입양 장려 서비스 / 유기견 입양 서비스 / 반려동물 등록제 범국민적 의무화
동물 방송, 정보 자료집 / 애완동물로 인한 심리치료

[성과]

유기견은 시민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현시점보다도 막대한 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쏟아 붓을 수 없는 유기견 사태는 시민의식의 개선이 첫째 조건이며, 둘째는 자유로운 입양으로 애완동물의 판·구매 수를 줄이는 대신 현존하는 생명의 귀함을 인정하고 시민의 사랑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주세요

저출산이 심각한데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고 싶고 아이 키우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 주세요.

아이 맡기기 편한 안심 어린이집(보육교사 이직률 낮고 친환경 식단에 놀이기구 우수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곳)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아이 놀기 편한 놀이터(EQ, IQ 높이는 최첨단 놀이터)가 많고, 아이가 안심하는 동네(동네 아이 지킴이, 보육 조언이 가능한 사람들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길 담배를 자제해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힘들지 않은 곳)이면서 아이가 사교육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곳(꼭 학원 아니어도 보충수업이 가능한 곳이 있고 공부 도와주는 대학생들도 만나게 도와주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소요 예산은 가늠하기 힘든데 가능하다면 예산을 퍼붓기 보다 우선 동네 사람들의 협조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세금이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세금을 사용해서 저출산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반려동물 복지증진 강화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며 반려동물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동물의 건강한 생존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인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소요예산]

100억 예상, 점차 증진해야할 필요성

[재원조달방안]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해 부족한 예산 확보, 동물복지기금을 활용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치솟는 배달비 담합 신고 인센티브 정책

코로나라는 재난을 특수로 인식하여 역으로 이용하는 배달비로 인해 물가의 인상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여러 소상공인들은 배달비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에 있고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한다지만 사회적인 상황이 갑작스럽게 좋아질리 만무합니다. 각 지역에서 배달 전문 업체들의 가격담합이 있었는지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분기별로 담합이 있었는지 소상공인들의 관련 제보에 따른 보상이라던지 인센티브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보상비까지 합쳐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충분히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통해 각 시민들의 재원조달을 위한 추가 세경납부의 부담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소요예산은 지역별 인구수 당 10만 명 기준 3억 원이 넘지 않을거라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많이 책정할 필요도 없이 소상공인들은 아주 환영할 배달비 담합 신고 보상 인센티브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농촌체험 테마빌리지 구축

[현황]

청주 상당구의 외곽지역은 농촌 마을이 많은데 각 농촌 마을별로 6차 산업 테마형 농촌마을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곳들에 농촌체험 테마마을이 구축되어 있지만 그 공간이나 인프라 구축, 내용이나 프로그램 과정은 대동소이 하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 각 마을마다의 SWOT 분석을 통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그 경쟁적 차별성을 잘 부각시켜볼까 합니다.

[제안사항 및 예산충당 방안]

지근거리에 있는 세종시에 농림축산부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가칭 청주 상당구 농촌융복합 사업단을 구성하고 연구비와 농촌특별사업 회계 지원비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따로 예산지원 없이도 체험, 숙박, 농산물 및 가공품판매 등의 수익으로 자생력 있는 농촌테마마을을 많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와 대청호 주변은 휴양과 레포츠 구역으로, 남일면 일대는 다양한 농장 체험 구역으로, 용정동 용당동 일대는 목장체험 구역으로 문의면 일대는 전통문화체험 구역으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경쟁적 차별성을 잘 부각시키며 농촌체험 테마빌리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청주상당구는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와 같은 대도시들이 많고 수도권에서의 교통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도농교류 활성화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농가소득증대와 같은 효과를 거두는데 청주 상당구의 농촌체험 테마빌리지가 그 좋은 롤모델 잘 보여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폐교나 폐가의 재활용 문제도 해결되며 이런 테마마을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마을 정주를 통한 젊은 인구층의 인구유입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충청북도 충주에 청년공간 설치를 제안합니다

충주에 청년공간 설치를 제안합니다.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에는 다양한 시군이 지원하는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청년공간을 검색해보니 충주에 5개가 있고 충주에는 1개도 없습니다.

(출처 :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youngSpce/youngSpceList.do?pageIndex=1&srchYgmnSpceId=&dtlOpenYn=&srchSpceWdrCtpvCd=003002010&srchSpceBsgaCd=&srchUtzeCostCd=&srchOperSttsCd=&srchSpnm=&srchProgYN=&srchEmpmConsCd=&srchVdcnOperYn=&srchSortOrder=latest>)

공간이 없다보니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한 교육과 행사가 이루어지거나 지역민들끼리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가 소통하고 생각하고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들!

1. 노인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 주세요.

기하급수적인 노인 비율 증가의 문제 속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노인 돌봄, 복지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년층의 사회 적응을 돕고 노후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기관인 노인 학교를 설립해 주세요. 노인 교육의 더 나은 개선을 위해 학교 운영 재정을 확대해 주시고, 교육 과정을 정비하고 획일적 교수 방법의 개선으로 학교를 정비해주세요.

* 노인 학교는 노인복지관이나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기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노인 학교를 설립하여 확실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지하철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해주세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사고.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동이란 단어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리프트를 철저한 점검으로 사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두고, 필요한 곳에는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이동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쉽지 않은 공약이라 한들,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에 그 누구보다 귀를 기울이세요.

3.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주세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지원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며 교육의 질이 높고 교사의 처우 수준도 높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도움) 정책의 보육 지침에 있어 운영 기준점도 명확하여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성남 88곳으로 전체 32.5%라고 합니다. 적은 편은 아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교사 고용 비중도 늘리고 아이들이 보다 더 나은 교육의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는 편하고 안심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약속해 주세요.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경제회복지원금

재작년 1차 재난지원금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경제회복지원금 정책 시행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

소상공인에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국민들에게 소상공인 매출을 올려줄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국민 모두의 경제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적갈등,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별 지원할 경우, 대상자가 아닌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불만이 생기고 세금을 많이 내도 돌아오는 게 없다보니 세금저항이 생기고,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점을 고려해 전 국민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때처럼 지혜 화폐방식으로 기한 내에 다 쓰도록 하며, 소요예산은 1인당 25~30만원, 재원조달은 회계조정과 탈세에 대한 엄격한 단속, 가계부채 감소를 위한 재정지출확대정책 기재부에 요청.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특히 저출산문제는 저소득층에서 급격히 나타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으로 일정소득이하의 가구에게는 300만 원 가량의 장려금을 지급하되, 이를 악용하여 아이를 낳고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 후에도 아이의 경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한 명의 아이가 자라나는데 있어 필요한 사회, 문화, 경제,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전 생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이의 유년기에 문화활동을 위한 비용 한 달에 10만 원 지원, 확인하기 위한 활동사진 증빙요, 인터넷강의와 교재 무상제공(진도율 확인 및 수시 시험), 전문적인 진로설계를 꿈꾸는 경우, 배우고 싶은 분야와 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 시, 진로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난과, 부족의 대물림이 두려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빈부격차가 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인재 발굴 및 국가성장에도 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간 3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지방세와 국세의 교육세,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여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맞벌이 가정 보모 지원 요청

저는 결혼 1년차, 직장 10년차인 34살 갓주부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대략 1년 3개월 정도는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지만, 그 이후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제가 아이를 낳아주기는 했는데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 같아서 두렵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맞벌이 가정일 경우 전담 보모를 금전적으로 보조금 정도 지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후 산후도우미로 최장 4주 정도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 육아를 생각했을 때 너무 짧은 기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요 예산은 사람을 고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예상되나, 모든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일부 지원이라도 원하는 부분입니다.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 제안드리는 내용이고, 터무니없는 제안 사항일 수 있으나, 한번 생각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안양시의 이런 점을 추가해주세요

1. 안양시 만안구 한라비발디 앞 안양천 길에 있는 새똥 청소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에는 안양천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천에 비둘기가 많은 점과 그 위에 다리가 있어 비둘기들이 다리에 앉아서 배변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아래에는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자전거 길과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새똥으로 인해 외관상 보기 안 좋고 지나갈 때도 불편합니다.

2. 안양천 애견 운동장, 농구장에 울타리 설치

박석교 근처에 있는 애견 운동장과 안양천 곳곳에 있는 농구장에 울타리 설치를 원합니다. 애견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목줄을 풀어놓고 강아지를 놀게 합니다. 하지만 보기는 좋지만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사람들을 물 수도 있습니다. 또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다보면 농구공을 놓치면 자전거 도로로 굴러가 사고가 난다거나 개천에 빠질 수 있습니다.

3. 마을버스 01번 배차시간을 줄이거나 여러 대 운행

학교를 가는 버스가 01번 단 하나밖에 없는데 배차시간도 길고 한 대밖에 운영하지 않아서 버스를 놓치면 무조건 지각해요.

4. 박달시장 쪽 도로변 불법 주, 정차 단속 강화

박달시장 근처는 사람들과 차가 많아서 항상 붐비는데 거기에다가 불법 주, 정차 된 차들이 많아 다닐 때 불편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5. 만안구 청소년 문화시설 추가 설치

동안구에는 춤이나 노래 연습실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데 만안구는 연습실도 없고 있어도 가격이 비싸서 학생들은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해주세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해주세요.

카페에 직접 갔는데 그 곳은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께 정부에게 바라는 것을 여쭙보니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곳은 테이블이 하나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어렵고 여러 테이블이 있는 다른 카페보다 수입이 많긴 힘든 구조입니다. 정책자금을 지원해준다면 카페 규모를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어 재정이 안정 될 수 있으며, 홍보 자금도 마련이 될 수 있어 홍보도 병행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안정적이게 될 것입니다. 사업은 위험이 크다 보니 정부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다 부담하기엔 힘들고 안정적이지도 못하여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엔 힘든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주택 생활의 질 상생을 위한 공원, 주차장 건립에 대한 제안

[제안이유]

주택 주거지에서 가장 불편함은 주차문제와 녹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내용(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 주택가 안에 근린공원이나 규모가 있는 국가소유의 공터, 비어있는 사유지, 노후주택들을 매매 등으로 공간 마련
- 공간을 반지하 공간(0.5층) 주차장, 주차장 윗공간(1.5층)은 공원 조성으로 *1개의 땅으로 2개의 공간을 만듭니다.

공원을 출입하는데 계단을 이용해야 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운동기구, 벤치, 팔각정 등을 설치하고 녹지를 조성해 도심에 사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빈지하 공간은 공간이 충분하다면 건물 주차장처럼 아예 입구, 출구를 만들어 큰 주차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공간이 부족하다면 중앙까지 땅을 파지 않고 각 면마다 차의 절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정사각형의 공간에 각 모서리 부분에 4개의 계단을 만들어서 위쪽 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나머지 비어있는 상하좌우 면에다 차량의 절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안쪽으로 파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공원과 주차장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두 가지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늘어날수록 불법 주차를 줄일 수 있어 주택가에 사는 아이들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녹지가 늘어날수록 대기 정화는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지식이 부족하여 응답하기 힘듭니다.

[제원조달]

공영주차장 예산, 도시 공원 예산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유기견 문제

많은 유기견들과 유실견들이 개고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개고기로 판매되고 있고, 개농장에서는 병에 걸린 개들이나 아픈 개들을 도축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아무런 규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고기는 허가된 도축장도 없을 뿐 아니라 도축,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 과정에서 위해의 우려가 있고,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검사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법적으로 시중 유통 판매됨으로써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어요.

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동물의 도살 및 유통, 판매를 금지하여 심각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국민의 위생, 보건, 건강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과학 기술 연구를 위한 인력 예산 확충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지 못하면 국제 사회에서 도태되고 정치, 경제적 힘을 잃습니다.

기술은 곧 국력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단기간 성과 위주 프로젝트만 진행하고 있고 연구원들의 연봉이 낮으니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연구원들의 해외 유출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의 연구원 연봉을 참고하여 연구원들의 연봉을 최대한 높게 책정하고 단기 위주의 프로젝트만이 아닌 장기 연구가 필요한 주제의 연구들도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담당 교수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나누는 방법이 아닌 연구원 각자에게 국가가 따로 지원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또한 철저히 감사해야 합니다.

기간을 5년~10년 이상으로 보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연구 수준은 바닥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데이트폭력

1.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

데이트폭력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차이가 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여성폭력 과도 피해의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의 피해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신변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데이트폭력은 다양한 폭력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보복범죄가 발생할 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신변보호조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보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정보를 인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수위는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결된다. 형량이 낮은 범죄는 범죄에 의한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가벼운 범죄로 인식되기 쉽다. 재발 방지의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에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효과적일 수 있다.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현재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4.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안처분 강화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형벌집행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 한 경우 경찰, 보호관찰기관, 사회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기타 교육기관이 협력해 데이트폭력 및 데이트폭력에 의한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공통의 목표와 법률을 토대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5. 폭력전과공개제도 도입

최근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들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하기 전 그리고 발생한 후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전과기록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클리어법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정책 심의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주요내용]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고 막상 보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론 수렴 겸 양질의 정책을 선택의 공간을 마련해주십시오.

전국에는 청년을 위한 취업보조금, 월세보조금, 교육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이 있으나 지역별로 청년들이 느끼기에 시급한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당위성 확보 그리고 청년층의 지역 애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결정과정의 단순화&자금 흐름의 투명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재원조달방안]

2022년 성북구 내 예산 편성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70,640백만 원 중 일부 배정.

선호도 조사 자체는 대학원생들이 프로젝트로 진행 할 수 있을 만큼 쉬우며, 재원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사전투표소, 투표일투표소 운영해주세요

[주요내용]

- 청각장애가 있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함
-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함
- 우리나라의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수어이다.

[문제점]

- 수어통역사 배치 사전투표소 서울 3곳이다.
- 수어통역사 배치 투표일투표소 서울 0곳이다.
- 수어통역사 배치 투표소 개수가 적음에도 시군구 단위로 열람해야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주요내용]

- 수어통역사 배치 사전투표소, 투표일투표소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투표일투표소에 대해 사전투표소보다 수어통역사 배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어통역사 배치 시 수어통역사 인원 확보가 어렵다면 자원봉사자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예산]

- 수어통역사 임금 기준에 따라 논의
- 수어통역사 인원 확보 곤란 시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고려

[재원조달방안]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타 분야 예산을 삭감 및 조정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수원시.구청,시청

수원시 특히 권선구청 및 수원시청 공무원들 및 민원접수 처리 과정 관계자 전부 신속하지 않고 나태하며 처리 현장 및 관리와 처리가 미흡하고 국민을 위한 시민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관리 및 민원을 업무 태만하며 시청 상담사와 그 책임자는 전화를 돌려 장난을 하고 차단을 시키는 직무유기와 사실이 있고 민원의 관계자들은 대충 처리하고 오히려 시민과 싸우고 시비조의 말투에 어조로 비아냥거린 사실과 약자를 지켜야하는 노인과 아동의 민원에도 자신들 눈에는 안 보인다면 대충처리하고 관계자들은 이따가 자리 옮기면 된다는 식으로 앉아서 말싸움이나 하며 일을 하지 않고 시간 때우기를 하는 무례함이 특히 권선구청과 수원시를 관리한다는 시청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고 공무원들은 인성교육과 정신교육을 다시 배워야 할 태도와 말에 큰 문제가 단체적으로 처리기피하는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바른 수원도시의 관계자들이 맡아 발전되는 도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촉법소년법 폐지 및 동물학대처벌법 강화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 접촉을 쉽게 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어린 학생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처벌 받지 않고 부모님이나 가족의 인계하에 풀려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악이용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범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처벌 부분을 강화한다거나, 연령을 다시 정하거나, 촉법소년 구분을 아예 없앤다거나 촉법소년 관련법을 따로 만들어야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 받게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하루걸러 뉴스에 동물학대 기사와 뉴스가 나오는데 처벌법이 있지만 법이 너무 약하니까 계속 하대와 유기, 학대, 살인까지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저는 동물을 시작으로 사람에게까지 올 수 있는 잠재적 살인자 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처벌 수준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정치, 행정 사법 이전

[목적]

-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 교통, 환경 및 경제활성화 도모
- 서울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정치, 경제, 사법, 행정, 문화, 교육, 경제, 일자리가 한곳에 밀집된 게 원인
- 민간기업을 지방이전 하는 건 실시가 어려움
- 청와대, 국회, 사법, 행정부는 가능

장점

- 서울 및 경기도의 과밀화 해소(환경, 교통, 집값)
- 지방 대도시 육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가능
- 국책사업 시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 등등

청년실업, 출산율까지 긍정적 효과 가능함 / 무궁무진한 장점

인구 3백만 이상의 도시 3개만 신규 설립 될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50년~100년을 이어나갈 수 있음

단점

기득권 반발

정부가 바뀐 지금이 시행최적임

5년간(22년 ~27년) 완료목표

[재원]

년간 예산 단계별 편성 및 시행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교통사고 예방

이륜자동차가 이동시에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차로나 지정차로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으로서도 훨씬 뛰어난 이륜자동차가 안전을 위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로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이륜자동차도 이동수단으로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사륜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겪어왔으며 오히려 이륜자동차가 많아지는 것이 교통흐름이 안전하다는걸 깨닫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위험해서 이륜자동차는 진입하면 안 된다? 50년이 넘은 1972년이라면 사륜차보다 못한 원동기들만이 있을 때라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에 와서는 연비는 물론이고 속도도 사륜차보다 빠른 이륜자동차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박해받고 위협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동기들 중에 대부분 생계를 목적으로 타는 분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타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 운전자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 원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하게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거고 사륜차들도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이륜자동차를 위협하는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막 운전을 시작했을 시기에는 어른들이 위험하다 하시는 말씀을 인이 박힐 정도로 들어 오면서 인식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만 이륜차를 타기시작하고 사륜차에 위협 받기 시작하면서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사고율이 왜 1위라고 하는지는 제가 생각해보고 겪어본 바로는 사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운전기술 또한 말도 안되게 떨어지는 상태로 면허발급을 받고 운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가 이륜차운전자들에게 개방이 된다면 좋은 이점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개방되고 정상적인 운전자들이라면 일단 교차로가 많은 일반국도에서 티가 날정도로 사고율이 줄어 들 것이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도 줄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청소년 부적절한 광고 규제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광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은 이전보다 광고를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청소년이 학습 자료를 찾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함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매체 사용 중 노출될 수 있는 선정적인 광고 등의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뉴스, 유튜브 등 다양한 곳에서 노출되는 이러한 광고들을 접하게 되었고 저희는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많은 청소년 이용자를 보유한 유튜브나 신문사 광고의 경우 신고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탓에 부적절한 광고가 미성년자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광고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낮출 수 있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서를 작성하기 전, 저희는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청소년 13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답변자 중 121명이 선정적인 광고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광고 신고 기능을 사용하였음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느낀 답변자는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자들은 유튜브, 신문기사, 페이스북 등 개인 SNS 순으로 선정적인 광고가 많이 노출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규제를 위해 부적절한 요소가 포함된 광고를 심의하는 새 부서 만들기, 정부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기 등 정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2명 중 9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질문에 대해 전체 답변자 중 86명은 기업의 낮은 심의가 선정적 광고의 지속적 노출의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본다면 선정적인 광고의 규제를 위해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완전히 기업의 자율성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혹은 기업에서 광고 게재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잘 이행했을 시에 정부에서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설계 시에 층간소음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 현재 층간소음 제도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앞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한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되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이 집에서 안락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유]

1.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현황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노이로제와 같은 스트레스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능률저하 등 사회적 손실이 크다.

2. 기존의 층간소음 법적 규제의 문제점

기존의 층간소음 규제인 표준바닥 및 슬래브두께(210mm), 인정바닥구조(중량충격음50dB, 경량충격음 58dB)을 만족하는 설계와 시공을 하여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3. 아파트 층간소음 제도운영 실태

실제로 지난 2019년 공개된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입주 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달하는 184세대가 사전 인정받은 수준보다 낮은 등급으로 시공됐으며, 특히 이 중 60%인 114세대는 최소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 기존 층간소음 규제의 한계점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완충재 바닥 및 슬래브두께를 강화하여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의 ‘벽식 구조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개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완충재의 특성은 경량충격음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층간소음의 70%를 차지하는 중량충격음(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을 줄이는데 기대하기 힘들다.

5. 기동식 구조의 한계

기동식 구조로도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다.

기동식 구조는 옹벽식 구조에 비해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있다. 연구결과 3dB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국토부에 따르면 기동식 구조의 층간소음 차단효과는 옹벽식보다 1.2배 높았다. 기동식이 옹벽식보다 층간소음 저감효과는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6. 현재 층간소음 피해 보상의 문제점

기존의 제도는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하자보상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다.

피해 받은 국민들끼리 갈등 해소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7. 기존의 제도는 층간소음을 해결한 새로운 아파트의 탄생을 막음

시공사는 기존 층간소음 규제인 표준바닥 및 슬래브두께, 인정바닥구조만 만족시켜 공사를 하면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이러므로 설계자, 시공자들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하거나 노력하지 않는다. 이것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파트의 탄생을 막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제도개선 내용]

1. 기존 아파트 규제(표준바닥구조, 50dB, 슬라브두께 210mm)폐지

2. 층간소음을 고려한 아파트 설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주간 36dB),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도록(야간 30dB) 아파트 설계를 해야 한다. (WHO 기준에 만족)

3.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보수 및 손해배상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하자로 인정하고 보수하고, 개선되지 않을시 분양대금 반환 및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 해야 한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길고양이 등 야외동물에 대한 공약

1. 지자체의 동물 용역 선별 시 복수용역 참여를 금지해주시요.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의 포획과 방사,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복수로 용역을 선별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획이나 사체 사진을 중복으로 찍어 개체수를 불리거나 포획된 길고양이를 다른 지역에 방사하기도 합니다. ○○시의 ○○구 TNR사업의 경우에는 일명 수술쪼개기 담합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동물복지 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예산, 다시 말해 국민혈세의 낭비입니다. 확실한 관리 감독은 물론 현실적인 시스템의 정비가 절실합니다.

2. 동물용역의 입찰에 있어 별도 조항의 계약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기동물 포획, TNR, 로드킬의 용역 계약은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사업으로 반드시 계약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계약해지, 사업비 환수, 입찰 개월 수 제한 등으로 그 처벌규정이 매우 미약합니다. 또한 입찰된 용역에게만 사업권한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재하도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하도급 인정 범위가 건설사의 계약 관행을 통상적으로 따르기 때문인데 오히려 부정행위가 일어나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사업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현 상황에서 이제는 동물사업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적절한 계약법이 도입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전문가와의 논의, 합의를 토대로 동물용역계약법을 별도항목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담합비리와 부정당행위의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별과제입니다.

3. 동물용역사업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용역사업 부정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 범위에 있다는 이유로 시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협약서나 보안서약서도 없는 사람들이 국가사업의 민원 리스트를 열람해도 조력자이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태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목적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은 국가사업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동물학대자나 혐오자들이 동물용역사업에 참여해도 목적사업 범위에 있으므로 신원조회나 계약서 없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무투표 당선이라도 공약/계획을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지침 개정 요구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별 의원정수 이하의 후보자가 입후보 한 경우로 무투표 당선이 되는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작성자 본인 지역구의 경우도 구의원 선거 없이 2인의 후보가 무투표 당선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의 공약 및 4년간의 의정활동 계획을 알아보려 선관위 후보자 정보 웹사이트에 접속해도 두 후보가 모두 공약을 제출하지 않아 열람 불가였습니다.

우편으로 오는 선거 공보에도 두 후보의 것은 없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니 후보자 홍보물을 거창하게 만들 이유는 없지만, 최소한 앞으로 4년간 임기동안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공약/계획 요약서 정도는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회 의원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은 사람들이 달랑 경력, 재산, 전과, 병역 등 의무제출 기본신상정보만 공개하고,
통상 사무관급 의전을 받는 기초의회 의원에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인지 의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개선 되도록, 무투표 당선이라도 공약/계획을 의무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서울시 중구 다산동 성곽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탁드립니다

다산동 성곽길(한양도성, 장충체육관 다산 성곽 도서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약수역에서 도서관까지 구간이 너무 가파르고 높아서 장충체육관 옆 성곽길로만 걷게 됩니다. 약수역 골목길 따라서 가능한 곳에서 부터 성곽길 중간정도 위치(충현슈퍼, 형제교회, 동호로 17나길 5-23, 동호로17길 79, 부근) 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 많은 관광객들도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주민들 편익은 말할 것도 없구요.

그리고 약수역 뒷골목 일대가 베네치아 골목길처럼 상권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지나가는 골목길 될 테니까요.

1석 3조의 에스컬레이터가 될 것 입니다.

1. 주민 편의(노약자)
2. 관광객 유치
3. 지역 상권 발전
4. 문화시절, 문화 shop발전

서울시장, 중구청장, 중구 구의원, 중구 국회의원님들이 꼭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산동 상곽길도, 중구도, 서울시도 문화도시로 변화되고 주민들 삶도 향상될 것입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자전거 뺑소니 운전자 보도블럭 통행 적극 계도 시행

시내 혹은 자치단체에서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고 가는 행인들의 계도가 적극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보도블럭에서 종을 사용하여 주의도 주지 않고 냅다 달리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부딪혀 다치는 사고 발생 후 다리 종아리에 3cm정도의 상처가 났고 하의가 철 불순물이 묻어서 오염되었습니다. 해당 운전자가 미조치를 하여 (흔히들 일컫는 뺑소니) 신고를 접수 하였는데 각도상으로 잡히지 않아서 범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이 재발생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지역사회가 좌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역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음주차량을 단속하듯 음주 운전을 하는 수동 이륜차 이용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일제강점기 光州 독립운동의 산실 興學館 복원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하던 시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신간회(新幹會), 광주(光州)청년회와 성진회, 독서회 등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주역들과 여러 단체들이 활용했던 흥학관(興學館)을 복원하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국민에게 우리 조상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하여 꼭 복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상황은 옛 흥학관 건물은 온데 간데 없고 후에 들어선 건물벽에 興學館 터라는 표지판만 붙어 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소요예산(추정)]

약 300억

- 현 건물매입
- 옛 건물복원
- 사후관리비(매년 예산 반영)

[재원조달방안]

국비 80% 지방비 20%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후보자들이 국민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책자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만18세 이상부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공무원을 뽑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각 후보자들은 선거공약책자를 만들고, 그 책자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전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기업인 소소한 소통과 손을 잡고, 발달장애인, 새내기유권자, 노인을 위한 쉬운 공약집을 만들었고, 지역 복지관에 전달했으며, 홈페이지에도 자료를 공유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고령층이나 젊은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공약책자에 나오는 용어가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작다고 느껴질 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공약책자를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만든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약책자를 보면 VR코칭, 스마트한 시스템, 로컬푸드, ESG전환 지원, 플랫폼 신설, 메타버스, 빅데이터, R&D재정투자과 같은 불필요한 외래어를 넘치게 사용하고 있고, 공기청정기 비치, 구축, 감세 등 무분별하게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래어와 한자어를 불필요하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는 일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공약책자를 쉬운 용어로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정책목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국민 개개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복지를 위해 충분히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참정권을 보장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정책목표]

국회에 관련 자료를 내고 법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일산신도시 공약

일산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전반적인 도시 재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일산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적률 및 종 상향 그리고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일산신도시 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창릉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일산신도시는 희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임.

따라서, 낙후된 일산신도시의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업 유치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사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업의 개요 및 목표, 교통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물 개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함.

아.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주민의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며,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함.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반려견의 위험성

저희 집 사랑스러운 막둥이 일곱 살 딸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는 늑대견 5마리에게 몰려 12군데 크나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도 할머니 집 마당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목줄과 입마개도 없이 방치된 풍산개들 다섯 마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것이 개들에게 뜯기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천만다행스럽게도 얼굴과 목 등 주요 급소는 지켜냈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부위들에 피하지방층이 다 드러나 찢겨나갈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윗집 견주는 “원래 착한 개들이다”라며 개들을 그대로 키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정말 살처분을 해도 시원찮을 그 개들을. 이미 사람을 공격해 피맛을 본 개들을. 계속 기르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 또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족은 윗집 견주에 셀 수 없이 여러차례 개 울타리, 입마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사정 사정하고 부탁 드렸지만 결국 저희 어린 딸에게도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늑대’로 불리는 무서운 개들입니다. 견주는 개들을 풀어놓고 야생 들짐승들을 사냥해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개들을 길렀습니다. 동네 주민분을 물었고, 저희 집에 놀러 온 외삼촌의 소형 반려견도 물어 큰 수술도 받게 하는 등 사냥습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견주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저희는 또다시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견주는 “몇 마리는 기르겠다.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짐승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사람을 공격한 개는 그 자리에서 사살할 수 있습니다. 사후라면 안락사를 시킬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풍산개가 맹견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사람을 물어 뜯어놓았어도, 개는 견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들짐승을 사냥하며 야생화가 돼 공격성이 강해졌어도, 맹견이 아니기에 견주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 이상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합니다. 국민분들, 이웃사촌님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이 겪은 이 끔찍한 일을 다른 누군가 또다시 겪지 않도록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비매품>

발 간 월 | 2022년 6월
발 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Tel. 02)503-1114 www.nec.go.kr
제 작 | (주)씽굿커뮤니케이션 02-334-7540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중앙동 2-3)
TEL. 02)503-1114